朝鮮日報
夕刊
二十九日(火)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燦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illegible]

伊對案無讓步로 英、和協工作斷念
政爭多忙에不關코外相渡壽
制裁案發動에邁進

【倫敦二十八日發聯合】英佛伊三國政府間의 和協工作은 二十五日 못솔리니首相의 對案提示以來 停頓되어 英國政府는 二十八日에 至하야 드듸여 和協工作을 斷念하고 制裁案執行에 邁進하기로 決定하엿다고 聯盟된다 聯盟代表 이든無任所相外에 호어外相이 政爭으로 多忙한때임에도 不拘하고 쥬네브行을 決定한것은 分明히 英國政府의 態度硬化를 反映한것으로 兩代表는 서로 協力하야 制裁案의强行을 主張하야 調整委員會의 大勢를 支配할 作戰이라고 보인다 英國政府側에서는 二十八日夜 非公式으로 和協工作決裂의 事實을 確認하고 大體如左한 意向을 漏洩하엿다

一、羅馬、巴里間의 好交的意見交換으로 聯盟規約의 精神에 基하야 伊에兩國政府雙方이 受諾할수잇는 和協案의 基礎를 發見한다는 希望은 全혀 消滅이나 放棄치 안흘수업게되엇다 따라서 聯盟國으로서 戰鬪期間을 短縮하야 講和를 促進할 見地에서 調整委員會가 起草한制裁案을 全的으로 適用할밧게업다고 보인다

一、호어外相은 調整委員會의 決定을 重視하고 이든無任所相의 뒤를 이어 쥬네브에 赴하야 委員會에 出席할터이다 外相은 數日쥬네브에 滯在하야 十一月三日에는 倫敦에 歸還할터인바 三日까지에 委員會의 議事가 終了되지안흐면 其後는 이든無任所相單獨으로 代表의의 任務에 當할터이다 (寫眞은 호어英外相)

호어外相、이든代表 制裁案發動을協力

【倫敦二十八日發聯合】聯盟代表 이든無任所相은 三十日 倫敦出發 쥬네브에 赴하야 制裁調整委員會에 出席할터인데 호어外相도 二十八日 倫敦出發 쥬네브에 急行하기로 決定하엿다 十一月二日까지 쥬네브에 滯在하야 이든無任所相과 協力하야 制裁案委員會에 어든一大勢를 [illegible]

伊軍八萬前進으로 一大決戰展開?
마칼레一擧奪取作戰

【아도와二十八日發聯合】伊太利北軍無慮八萬은 三軍에 分하야 前進을 開始하야 아지·네프스等의 要衝을 占據하엿다고 傳한다 中央土民軍은 시리네將軍指揮下에 과라와이山一帶의 高地를 目標로 前進하야 友軍과 共同作戰을 講究하면서 드듸어 井水地帶를 占據中이다 一方에 에디오피아軍은 라스·세윰將軍指揮下에 마칼레前線의 丘陵地帶에 堅固한 陣地를 構築하야 물샐틈업는 邀擊陣을 치고잇다 또 라스·캇사將軍麾下의 精銳部隊도 近近 到着하야 旬日이못가서 開戰以來의 一大決戰이 展開될것으로 보인다【羅馬二十八日發聯合】

못솔리니首相의 最少限要求에 對하야 英國政府가 難色을 示한結果 和協工作은 거의 決裂에 瀕하게 되엇는데 伊太利政府當局에서는 벌서 和協工作에 아모런 期待를 두지안코 北軍의 進擊으로 一擧에 마칼레를 奪取할 方針이라고 解釋된다

最近 모스크바大演習에 威力을보인 싸베트「赤蛇」탕크隊

蔣獨裁權强化
對日外交討議嚴禁
六中全會審議內容

【上海二十八日發電通】近近開會될 六中全會에서 가장論議의 中心이되리라고 豫想되는 國民政府의 對日外交에對해서는 이미 對日外交에對한 書記對로 不許하고 專히外交報告에 長 唐有壬氏의 外交報告에 그치고 蔣介石氏는 全國에서 集合한 自己의 腹心에게 對하야 獨裁權强化의 政策을 授하야 內外各方面으로부터 그實現을 要望하고잇는 日中外交方針을 姑息하고 蔣氏는 獨裁權强化에 狂奔하고 잇다고한다(寫眞은蔣氏)

中國側極度로唐慌 總領事抗議에

【天津二十九日發聯合】川越總領事로부터 嚴重한抗議書를바든 天津市長 程克氏는 卽時 市政府幹部를緊急召集하야 對策을協議中인데 商震氏가 昨夜北平에 돌아갓스므로 程克氏도 卽時 北平에 赴하야 商震 宋哲元 秦德純諸氏와 여러가지 協議를 行하기로 되엇는데 蔣介石氏에게 抗議內容을 打合하야 指示를 請하기로 決定하엿다 中國側의 態度는 極度에 狼狽하야 現在로는 어떠케할바를 모르고잇서서 一步를 그릇하면 北中事態는 極히 重大化할것을 보인다

打倒國民黨傳單

【天津二十八日發聯合】今日天津市中에 中華民衆同盟會의 聲明書라고 題한 傳單이 撒布되엇는데 內容은 蔣介石氏의 獨裁와 孫文의 三民主義의 本來의 意義를 沒却하고 獨裁的政策을 取하는 國民黨의 打倒를 記載한것이다

北中駐屯軍當局 商氏에重大提言?
同時에聲明書도發表

【東京電話聯合】中國駐屯軍에서는 北中農民의 自治運動에 對하야 靜觀的態度를 繼續해왓는데 近近 北中明朗化의 大局的見地에서서 河北省主席商震氏에게 重大提言을 하기로 決定하엿다고 確聞된다 卽 日本軍은 親日滿新聞社長의 暗殺 停戰協定地區內의 騷擾事件以來 隱忍自重、中國側에 對하야 北中明朗化를 强하야 善意의 努力을 傾倒해왓는데 中國側은 今日에 至하더라도 依然 日本側과 確約한 事項을 一로 履行치안코 誠意의 片鱗도 認定키 難하야 日本側은 條約과 協定의 命하는바에 依하야 自主的處置를 斷行치안흘수업다는 重大決意를 披瀝하려는者이다 卽中國側은 梅津、何應欽協定의 結果 日中雙方에 確約된 事項을 經蔑하고 或은 이것을 蹂躪하는 不誠意를 反覆하고잇는 實情은 日本陸軍中央部는勿論、關東軍、中國駐屯軍의 憤慨한바되어 近近 斷乎한 決意下에 河北省 政府主席 商震氏와「예스」냐「노」냐고 短刀直入的 警告를 發하야 北中의 徹底的 淸掃를 期하려는者이다

【天津二十九日發聯合】中國駐屯軍司令部에서는 二十九日 午前十時 聲明書를 發表하야 中國軍政當局에 對하야 公文通牒의 趣旨를 闡明하엿다 聲明書는 今年六月 何應欽氏와 梅津軍司令官사이에 締結된 北中에 關한 協定은 六月二十八日 軍司令官으로부터 聲明한바와가티 北中의 明朗化를所期한것이다 北中의 明朗化는 中外人士의 다함께 待望한바이엇다 그런데 軍當局에서는 右協定이 一時的解決에 끗치지안키를 特히 希望한데 不拘하고 얼마아니하야 灤州事件으로 右協定의 前途에 一大暗影을 投하게되엇다 또爾後의 內面的 [illegible]

伊太利提案? 지要塞中立을
軍縮會議에一巨彈

【羅馬二十九日發聯合】伊太利政府는 國際關係切迫에도 不拘하고 海軍縮少會議에 關한 英國政府의 招請에 對하야 欣然受諾을 回答할것으로 豫想된다 本會議에서는 積極的提案으로 지브랄타르要塞의 防備撤廢에 對하야 左의 要求를 提出할것이라고 傳한다

一、地中海는 大西洋、紅海를 連繫하는 通路로서 世界各國에 對하야 極히 重大한것

一、스에즈運河는 一八八八年十月 콘스탄티노플條約으로 中立的地位가 保障되엇과 同樣으로 지브랄타르 要塞도 中立化하야 裝備一切를撤去할것

勿論 右報道는 單純한 流言의 範圍를 벗어나지안는것이나 伊太利政府에서는 本會議의 範圍를 專혀 海軍制限의 技術的方面에 限定하고 政治問題의 導入을 拒否할 立場을 堅持하고잇다 萬一 右流言이 具體化하야 伊政府가 지브랄타르要塞의 非武裝化를 固持하게되면 本會議는 곳 停頓에 逢着할것으로보인다

在羅馬外交團側 和協交涉極度로悲觀

【羅馬二十八日發電通】英佛伊和協交涉은 라발佛首相이 제루티伊大使와의 會談結果의 報告라는 形式으로 和協試案을 英國에 傳達한以來 아모런 進展을 보이지안허 二週間後에 알는 英國政府는 對佛回答을 끄리고 對伊制裁延期不可能이란 部分的 또는 强硬態度를 暗示하는 曙光을 佛國에 與한것만에 끗친것이 羅馬에도 해와스로 先週中 和協에希望을 두엇던 羅馬在留 外交團方面에서는 지금 事態를 極度로 悲觀하게되엇다

無抵抗裡에 伊民團軍進軍

【아도와二十八日發聯合】라스시코將軍麾下의 팟시스트民團一個師團은 파라스마이河에 沿하야 數次前進을 開始하야 二十八日未明에 아도와前方二十哩의 地點에 到達하엿다 同軍은 아모 抵抗을 밧지안하 死傷一名도업섯고 各部落의 에디오피아人은 同部隊의 來着을 歡迎하엿다고한다

比律賓聯邦 義務兵役制實施

【마닐라二十八日發聯合】比律賓聯邦大統領케손氏는 二十八日 午後 米國陸軍前參謀總長맥아더將軍과 重要協議를 遂한 結果 新聯邦成立과 함께 全聯邦에 亘하야 義務的軍事訓練制度를 實施키로決定하엿다(寫眞은 케손氏)

瑞西聯邦 對伊에武器禁輸

【伯林二十八日發聯合】瑞西聯邦政府는 二十八日午前 伊에兩國에 對한 武器、彈藥及 軍需器材의 輸出及 再輸出과 國內通過를 禁止하엿다

諾威、制裁實施準備

【오스로二十八日發聯合】諾威政府는 二十八日 伊太利品輸入을 禁止하고 馬匹食料品의 伊太利向輸出禁止方針을 決定하야 언제든지 制裁實施의 準備가 잇다는 旨를聯盟事務局에 通達하엿다

伊軍左翼에 마칼레進擊命令

【아도와二十八日發聯合】伊太利軍總指揮데보노將軍은 二十八日 左翼산티니將軍麾下의 第一線에 對하야 마칼레進擊命令을 내렷다

制裁案參加의 回答聯盟國內譯

【쥬네브二十八日發聯合】制裁案發動에 關한 調整委員會의 要請에 對한 回答期限은 二十八日夜로써 滿了하엿는데 聯盟事務局의 發表에依하면 二十八日夜까지에 制裁案參加를 回答한 聯盟國은 如左하다

伊太利에 對한武器輸出을禁止한 聯盟國 四十個國 伊太利國과 金融斷交에 同意乃至 實施한 聯盟國二十一個國 伊太利品의 輸入을禁止한 聯盟國十一個國 伊太利에 軍需品材料輸出을禁止한 聯盟國十一個國 相互扶助案에同意한聯盟國六個國

香河事件에刺戟되어 各縣奪取計畫盛行
劉萬鵬等의活動猛烈

【天津二十八日發聯合】灤地入電에依하면 自稱山東第三路總司令劉萬鵬이라는者가 河北省南部淸河縣 大名縣及 山東의 西部冠縣等의 奪取를 計劃하고 二十五日 某方面으로부터 大名으로 向하엿다 또 自稱河南人民自治軍總指揮武裝參謀長劉十東과 連絡하야 미리 三、四千名의 紅槍會匪를 淸河縣에 보내고 또 靑年團에게 武器를 與하야 呼應하야 淸河縣을 占領하려는 模樣이다 또 自稱河北第一路總司令僞惠忠은 大名을 自稱河南第一路司令李振丈은 河北肝縣攻略을 企圖하야 二十五日 大名으로 向하엿다고 한다 右各司令의 正體와 兵力等은 全然 不明이나 河北南部地方의 自治運動의 隙에 乘하야 紅槍會匪와 連絡하야 各縣城을 占領하야 獨立政府를 樹立하려는것이 아닌가하야 相當히 注目을 끌고잇다

蔣介石氏 閻錫山氏와重要會談

【南京二十八日發聯合】蔣介石氏는 二十八日 午後五時 孔祥熙氏邸에서 閻錫山氏와 會見하고 北中新情勢에 關하야 閻錫山氏로부터 報告를 聽取하는 同時에 對策 特히 共軍討伐에 關하야 約一時間동안 重要會談을 遂하엿다

宇垣總督東京着

【東京電話聯合】宇垣朝鮮總督은 施政二十五周年에 際하야 勅使御差遣의 御禮言上、朝鮮內統治狀況 一般奏上을 爲하야 夫人、矢野秘書官同伴、渡東하야 二十九日午前七時二十九分 橫濱驛下車 卽時自動車로 同八時半四谷內藤町의 私邸에 들어갓다 同日一日은 私邸에서 休養하고 宮中의 御形便을 보아參內하야 御禮言上、政務奏上을 할터인데 또三十一日岡田首相과會見하는外에 各方面要路人들과 會見하고 來月初 朝鮮總督府 東京出張所의 新築落成式에 參列하고 天皇陛下 大演習御統監을 奉送한 後 十日前後 歸任의 途에 오를 豫定인데 宇垣總督은 政界各方面에 關係者가 만코 特히 政黨方面은 宇垣總督에게 여러가지 關心을 가지고잇는關係上 同氏를 訪問할사람도만하 政界各方面에 刺戟을 與하고잇다

紅軍大擧北進 黃河結氷後渡河
邊境空氣漸次緊張化

【天津二十八日發聯合】甘肅省의 紅軍約十萬은 數日來 陝西省에 進軍을 開始하얏는데 徐海東、劉子丹等의 紅軍과 合流하야 黃河의 結氷을 期하야 大擧 山西、綏遠에 들어갈形勢에잇서 邊境의 空氣는 漸次 緊張을 呈하게되엇다

[illegible]에反한 深刻 또는 [illegible] 日、反蔣의 行動을 [illegible]하는 것이므로 川越總領事는 去九月 再次 警告를 [illegible]하게되엇다 그러나 [illegible] 實效를 보게되지 [illegible] 日本側의 [illegible] 灤州事件과 如한것도 [illegible] 結果이것이 [illegible] 增大하야 政策的 決定的임을 發見하게되엇다 日本側에서도 以上과 事實이 中國側의 [illegible] 不拘하고 中國側에서는 如斯한 寬容한 態度를 엿보고 [illegible] 近時에는 [illegible] 認定 되는 [illegible] 正當으로 遺憾이다 [illegible] 北中의 赤化도 [illegible] 不辭한다는 意向이라면 日本政府로서는 斷然 如斯한 行動을 [illegible] 잇다는것을 이에 [illegible] 이다 이것을 두려워하는바는 [illegible] 外의 情勢에잇다 [illegible] 民國內의 [illegible]는 東洋平和를 [illegible] 全政權에 [illegible] 定의 [illegible] 안흘수업다

協定實行要求
總領事와軍當局이

【天津二十九日發聯合】天津市駐箚川越總領事는 二十九日早朝 河北省政府主席 商震氏、天津衛戍司令宋哲元氏、天津市長程克氏、北平市長袁良氏에 對하야 公文通告를 提出하고 灤州事件의뒷收拾 梅津及 多田司令官과 何應欽氏와의사이에 締結된 協定의 實行을 要求하엿다 그리고 多田駐屯軍司令官도 二十九日 石井參謀를 天津市長 程克氏에게 派遣하고 또 中井參謀와 北平駐箚高橋武官을 天津衛戍司令宋哲元 北平市長袁良氏其他北平의 中國側軍政機關에 派遣하야 北中調整에關한 軍의 立場을 闡明하얏다 同時에 軍司令官은 中國軍政當局의 反省을 促하고 卽時 有效適切한 措置를 講究하도록 要求하엿다

【天津二十九日發聯合】灤州事件과 梅津、多田、何應欽協定의再强調를 促하기爲하야 二十九日 午前九時 川越天津總領事의 名義로 河北省主席商震 天津衛戍司令 宋哲元 天津市長 程克 北平市長 袁良氏等에게 同時에嚴重抗議文을 提出하엿다

火田民指導
事務協議會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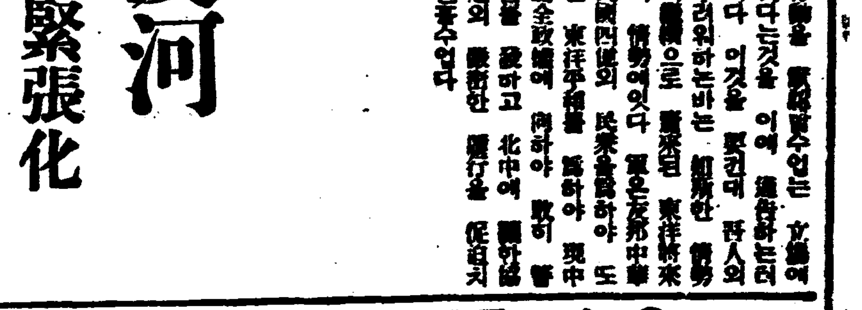
冷害及 高地帶開發의 對策協議會는 昨二十八日로써 終了햇는데 右에繼續하야 今二十七日부터 二日間에 亘하야 總督府第四會議室에서 山農指導區 監督事務所主任及 營林署業務主任會議를 開催하야 北朝鮮開拓事業에 作하는 火田民의 指導事務에對하야 冷害罹災火田民에 對한 當面의 應急救濟方法과 指導에關한 協議를 遂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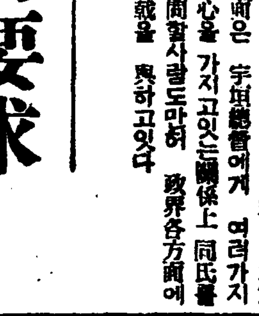
第六十八回議會
召集期日을決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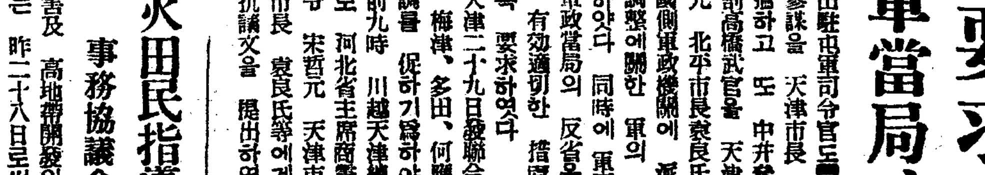
【東京電話電通】第六十八回帝國議會召集期에關하야는 二十九日 閣議에서協議한結果 左와如히決定하엿다
召集日 十二月二十四日
開院日 十二月二十六日
따라서政府는 곳上奏御裁可를奏請하고 來月初旬 議會召集詔書를 公布하기로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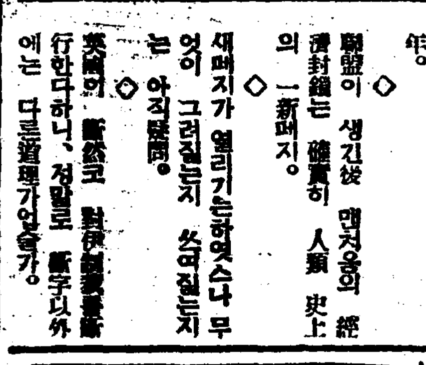
八面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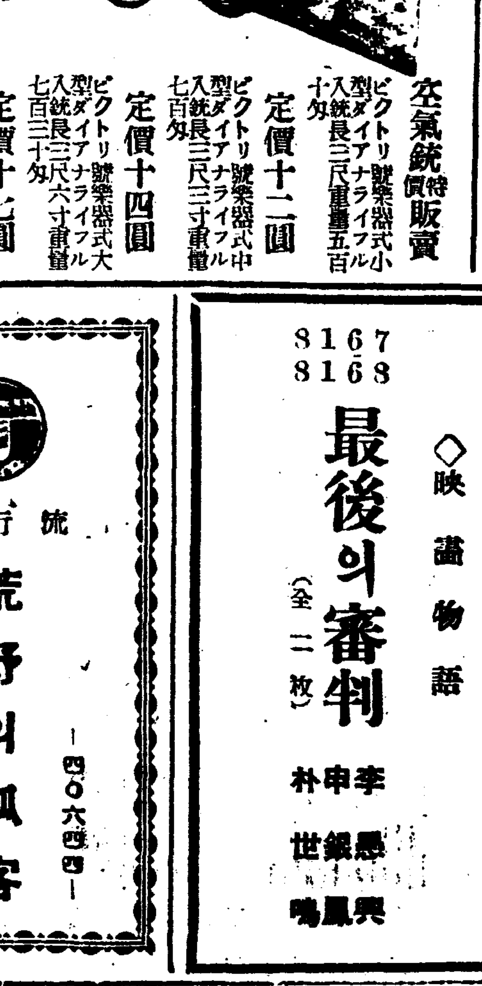
◇人類의 血液속에 太初로부터 흘르는 두가지 潮流, 하나는 平和, 하나는 鬪爭。
◇이것이 歷史의 經이오 緯라하면 물中에 하나만 바라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일。
◇그리하야, 鬪爭의 다음에는 平和가 오고 平和의 다음에는 鬪爭이오고。
◇世界大戰의 뒤人자리에 國際聯盟이안즈지도 벌서 十有五年。
◇聯盟이 생긴後 맨처음의 經濟封鎖는 確實히 人類史上의 一新페지。
◇새페지가 열리기는하엿스나 무어이 그려질는지 쓰여질는지는 아직疑問。
◇英國의 斷然코 對伊制裁를斷行한다하니, 정말로 斷字以外에는 다른道理가업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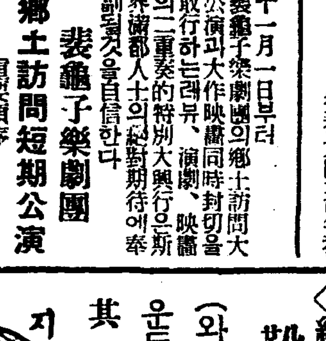
空氣銃特價販賣

定價十二圓 ビクトリ號樂器式小型ダイアナライフル入銃長三尺重量五百十匁
定價十四圓 ビクトリ號樂器式中型ダイアナライフル入銃長三尺三寸重量七百匁
定價十七圓 ビクトリ號BSA式ライフル入銃長三尺六寸重量七百七十匁
定價二十圓
吉田商店 大阪市東淀川區中津濱通三丁目 振替大阪

新築落成開館披露豪華陣
十一月一日부터 裵龜子樂劇團의鄕土訪問大公演과大作映畵同時封切을敢行하는레뷰、演劇、映畵의二重奏的特別大興行으로斯界諸都人士의絶對期待에奉副할것을自信한다
裵龜子樂劇團 鄕土訪問短期公演
重要順序
漫劇『멍텅구리第二世』一幕
寸劇『月給날』一景
舞踊劇『波水婦』一景
其外二十餘名으로組織된少女管絃樂團의舞臺演奏(朝洋曲)數種舞踊(콤라씩재즈、렘푸)數種、朝鮮舞踊『아리랑』獨唱合唱무지갤풀레이等斯界最高水準을거둘演技에括目하라
竹添町一丁目 電光三三 東洋劇場




十一月新譜 태평레코드
◇流行歌
8164 一夜夢 盧碧花 崔南鏞
人魚의노래 姜石燕
◇劇
8166 사랑의鋪道 피눈물 姜石燕
◇民謠
8165 시들은芳草(上下) 朴世鳴 申銀鳳
◇쪄쓰
8169 西班牙戀歌 姜石燕 海金剛打鈴 盧碧花
◇映畵物語
8167 8168 最後의審判(全二枚) 李愚興 申銀鳳 朴世鳴

下혈 患者여 血
하녀간 하혈로 고생하는분은 곳 (中略) 京城府
[illegible]

◇總고무靴·(와싱톤)운동화·다비其他各種
◇高級고무 品質保證


防寒靴는『지구표』가第一이오
愛用하라 신무고표구지
電話本局(2)三五四二 振替京城七五七一 京城府一町目八八
朝鮮고무工業所

大都映畵封切場 十月三十日부터二日間限定期公開 大衆席 十錢均一
大都映畵特作現代劇 根岸東一郎監督作品 水島道太郎主演 れいの薔薇 島田文郎、藤間林太郎 共演 春れ麗子
パラマウント超特作發聲日本版 ブエン、ストロフ監督 エドモンド、ロウイン、ギブスン主演 走る惡魔 自動車強盜의活劇! 자동차의 暴走하다
大都巢鴨超特作時代劇 木下雙葉原作 益田晴夫監督作品 天人お玉 相良傳三郎、大山デブ子共演 大岡怪童、月島小夜子
櫻井町 電本八五〇 大正館

當る二十九日封切(六日間) 世界映畵界の驚異 タインの花嫁 フランケンシュタイン ユニヴァーサル超特作日本版 監督 ジエームス・ホエール氏 コリン・クライブ エルザ・ランチエスター ヴァレリー・ホブスン 新興キネマ第一回超特作 東京 赤道を越えて 新興キネマ京都撮影所 月形半平太
永樂町 電本三六二〇 中央館

朝鮮少女들을誘引 强制로賣春虐待

朝鮮말을 禁制하고 가진暴行을恣行

神人共怒할此暴狀

少女誘拐魔窟 中人街서發露

이십구일 아츰 열시쯤되여룡산서(龍山署)사법계 형사세명이 서소문정(西小門町)팔십번지 의 상호를 숨겨하여 그집주인이산동성연태(山東省煙台)출생 당모(唐某)(?)와 잇그의안해 진씨(陳氏)(?)외맛딸교자(橋子)(?) 진집어다가『몰핀』밀매혐의로엄중한 취조를 하든중 뜻밧게그의 소생이라는 세자매는 친소생이아닌것은 물론 모다 조선아이들로서 각각 유인을 해다가 중국복색을식혀가지고매춘을해가며 중국말을 가르처서소위 큰딸이란소녀는 나이 열다섯밧게안되는 천진한아이언마극벌서삼년전부터 『몰핀』을 맛게하는데다가 더구나 악착하게도매춘을 시켜 그수입으로 악마가튼 그들의 입에풀칠을 해내려온 사실이 백일아래 폭로되엿다。

그들 마귀의 어섬손아귀에 사로잡히가지고 화대에 화대를 밧고 신음하는 세소녀들중 제일큰 애는 여자의 성을 따러 진(陳)이라 하고 일홈을 교자(橋子)(?)라 하며 둘재는 처희(?)(九) 셋재는 천자(?子)(七)라하여 흡사 가튼 어머니의 소생처럼 꾸며가지고 모다 중국옷을 입힌다음 중국말을 류창하게 하여서 보아서나 말을부처가지고는 도저히 조선아이들로 알어볼수업게 되여잇다

一方은"모히"密賣 少女誘拐로專業

陳少女는慶尙道某處에서入手

警察은誘引經路追窮

그리고 당가와진가 두남녀가전기장소에 이사해오기는 약일년전부터로 거기서 만흔중독자들을 상대로 아편과『몰핀』을밀매하는 한편 소위 큰 딸된다는 교자를 강제로 매춘을 시켜 이것을 감당할만한 성적발달이 못된 그소녀가 말을 듯지 안을때는 포학한 매를 가하야 부르지지는 가련한 소래는 그 이웃 사람들도 때때로 련려하게 드럿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남어지 처희, 천자 두소녀가 만약 그 부근조선아이들과 어울려 놀거나 조선말을 쓰면 엄혹한 매질을 하고 며칠식 밧게내보내지 안흘뿐 아니라 음식도 주지안허 이를 사흘식 굶기는 것을 항사로하며 그 엽집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측은히 녀이여 때때로 주먹밥을주어 동정을 표한일두 잇섯다한다。

이러듯 잔인하고포악한행동을 경계임수엿는 세조선 소녀에게 감행한 당가, 진두남녀가 확실히 조선소녀에 틀림업는 세아이를 어데로부터 다려왓는가? 는 아즉경찰에서 지금 엄중한 추궁을 하는중이므로 종차 판명될것이나 소위큰딸인 교자만은 경상도모처에서 주소성명을 수업는 사람이 생활곤난으로 그틀을주면서 양육해달라고부탁해다고 모호한 자백을 하엿스므로 이로써 그들이 유인해오것에 틀림업다 추정하고 준엄한 추궁을 계속하고잇다。

그리고 그들의취조에 딸어서는 서소문정중국사람 아편굴에 근거를둔 중국사람 중심의 유괴단일당을 철저히 소탕하게될것으로 룡산서의 취조결과는크게 주목을끄을고잇다。

마굴본거와 유인된 처히천자두소녀

醫師一部試驗 合格者發表

소화십년시행 의사시험 제일부 합격자는 이십구일 다음과가티 발표하엿다

染矢章助 申榮秀 非本德治 日
高鳳燮 本岡代 趙日福 朴秉
協 金昌鎬 宮地利貞 佐竹正
庸 加賀谷常吉 李尙華 水上
三次郞 李카라 松本惣三郞 金
順熙 李道淵 安月法保 石橋
東 韓正俊 殷文鉉 李敏福 閔
林敬鎬 朴敬來 朴永善 柳
鍾石 安敏任 金東錫 金東台
新成明 奧野範一 杉芳郞 金
李丙烈 [illegible]

어수룩한農村婦女들에 金錢强要하다發覺

서대문서(西大門署)사법계 거시내 삼청동(三淸洞)이백십팔번지 [illegible] 박의현(朴義鉉)(?)등 세명을 검거하여다가 강도미수의 혐의로목하 엄중취조중인데 전과[illegible]신이내 창성동(昌成洞)삼백륙십이번지 강대영(姜大榮)(?)은무연한 기회에 알게된이후로 그가마을이와하고 돈이잇는것을 엿보고 동범자의 공모하야 그에게서돈 십원을 거지협박적으로 빼서것에맛을 부처 지난달초순에 전긔강대영을 산보가자고 대리고나가서 시내 사직공원(社稷公園)깁흔 숲속에다가서 그의모자와 옷과 구두를 강제로 벗긴후 이를협박하야 금전을 강요하다가 목적을달하지 못한 사실을 위시하야 시내관훈동(寬勳洞)모요리관에서 수명의 부랑자를 데리고가서 그곳에 묵고잇든 [illegible] 이라고 자칭하고 협박하야 금전을 강요하면 사실등이 폭로되엿다 경찰에서는 그들의 일당이 상당하다수한정으로 추측하고 아즉도그중범죄가를 엄중수탐중인데그들의 강도단가튼 부랑배의손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만흔듯하다고 한다

昨年倍價白菜時勢

近郊菜園의凶作으로因하야

當面한김장恐慌!

어느듯 가을도느저가서 김장시절이 닥쳐오는빈곤함으로 반도햇다 차츰차츰 일반가정에서는 이중요한 년중행사의 하나인 김장준비에 착수해야 할때언만 금년은 수해와 충해로경성부를비롯하야 부근의 배추가 잘되지아니해서 지금부터도 배추갑은 폭등하야 부민은 김장공황의 위협에 부닥치게 되엿다한다

즉 지난해의 경성부의 배추생산은 이십이만 칠천오백관이오 무는 십일만이천관이엿는데 이것을부민의 수요의 일할도못되는것으로서 매년평균배추이백오십이만칠천륙백구십오관 무 삼백사십오만구천구백사십팔관 가량을 평양(平壤)인천(仁川)개성(開城)대구(大邱)하관(下關)과밋 근교로부터실어드리는 형편인데 금년에는 부내는 물론근교의채소보고(寶庫)인 뚝섬(纛島)을비롯하야 경기일대의 채소류가 잘되지아니해서 작년보다 약사할가량이 감수되리라고 예상되고 잇다

벌서 채소상인들은 배추를 바레세와노호재 홍정을시작햇는데 재배업편에서는 갑을 달아매서 대체로 백포기에 팔원을시세라고 고집하고잇다고한다

이갑은 작년의 최고가격 사원륙십전에 비교하면 거진배에 가까운데 이대로 버려두어서는 부민의 김장준비에 일대공황을 면치못하리라고해서 경성부 권업계(勸業係)에서는 그완화책으로 평양부산(釜山)등지방으로부터 배추무등속의 대량적반입을 입선하야 탈선적으로 뛰여오르는 이채소갑의 조절에 노력하리라고 한다

결국은 륙원내외로 갑사셋것이나 아닌가고 추측되나 어째든일반가정의 곤난은 막대하리라고한다

鍾路商界의本營 商協會館新建築

塔公園後面에明春竣工豫定

北村에異彩띨建物

경성 조선인 상공업자를 중심으로한 경성상공협회(京城商工協會)는 쇠잔해가는조선인 상공계를 위하야 그간만흔 노력을해왓스나 경비가 빈약하야 제법사무소하나도 가지지못하고종로이정목 덕원빌딩이층일부를세내어서 입을보든바 이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야 역원중에문의집회으로 경성부로 부터 『빠고다』공원뒤 긔지(基地)오십평을 어더내기로 작정이되어 지금수속만남엇다하며 이긔지에다가총공비 사천원으로 이층 양관을 신축키로 계획이 서서 공비는 제로 일전에 역원회를 열엇섯는데 이천원은 상공협회의 긔금(基金)이잇슴으로 남어지 이천원중 일천원은 역원이 분담키로되어 직석에서 팔백여원이 것치엇고 그날출석치안흔 역원도만히 돈을내노코리라하며 부족액 약일천원가량은 회원과일반사회의 찬조를바더가지고 될수잇는대로 속히 공사에 착수하야 명춘에는 성대히 락성식을 거행할예정이라는데 이가티하야 외장부터 완비할 경성상공협회에대하야 금후는 일층적극적으로 조선인 상공계를위하야 사업을진행케될것으로 일반이기대코잇다한다

신건설사건공판에몰려드는방청인(작일석간참조)

某官署職員筆頭 青年五名을檢擧

赤色"그룹"組織嫌疑로取調

東大門署서猛活動

시내동대문서(東大門署)고등계에서는 이삼일전부터 긴장되여이십팔일밤에 시내현저동(峴底洞)사십삼번지를 엄습하야 그곳에 묵고잇는 시내모관청에 근무하고잇는 리인환(李仁煥)(?)을검거하여오는동시에 이십구일 용벽에는 경성공립직업학교 교복을입은 청년한명과 또 모전문학교학생한명등전부 다섯명의 청년을 검거하여와서 형사실의문을 굿게잠그고 강두(江頭)고등게차석과 길(吉)부장이 엄중취조 중인데 경찰에서는 사건내용입체 비밀에 부칠으로 자세한 내용을 압기어려우나 모관청의 고용인들을 중심으로하야 전과 리인환이가 중심이 되여 적색(赤色)"그룹"을 조직한 사실의 단서를 그와가치 검거취조하는것인듯하다

主婦와어멈이 싸오고告訴질

주인아씨와 행랑사리녀자가사소한일로싸우고 고소질까지한사건이잇다=부내인사동(仁寺洞)일백십오번지에사는 리언년(李言年)(?)은 지난 이십일에 자긔집행랑에 잇는 녀자 김성녀(金姓女)(?)와 사소한일로 말다툼을하다가 서로 붓잡고 뒤잡이까지하게되자 리언년은『행랑어멈년이 건방지게 주인아씨를때리는것이무어이냐』고 그의머살을잔뜩붓잡은 김성녀는 [illegible] 약이주일간이나 치료를 [illegible] 진단료(診斷料)십이원가수를 빗내어가지고 진단서를마든후 상해죄로 종로경찰서에 고소를 제출하엿는데 리언년도 자긔도 역시상처가잇다고 진단을내여 맛고소를 하엿슴으로 동서에서는 리언년과김씨와를불러취조를진행중이라한다

運動競技

東京遠征中의 養正、崇商各勝

明治神競籠球第一日

【東京電話當通】第八回 明治神宮大會 第一日은 二十九日 午前八時부터 神宮外苑競技場에서 열리어 正午부터는 二十二種目競技의 參加選手 一萬三千名의 入場式이 잇슨後 各種競技는 繼續進行中인데 同大會는 來十一月 四日까지 行할터인바 朝鮮選手들의 戰績은 다음과 갓다

養正 42 (21 20 … 11 7) 18 東洋商

東京서열린 明治神宮全日本 中等籠球大會에 出戰한 養正高普籠球部對東洋商의 第一回戰은 今二十九日午前八時五十五分부터 神宮外苑코-트에서行한바 結局 四十二對 十八로養正軍 無難히 一勝하엿다 이리하야 第二回戰에는 靜岡師範對香川師範의 勝者와對戰케되엿다

崇仁 67 (28 39 … 11) 12 靜商

東京遠征中의 平壤崇仁商業籠球團은 明治神宮全日本中等籠球大會第一戰에 靜商商業과 對戰한바 六十七對十二로 大勝하엿다

▲女子一般籠球

京城第二高女 29 (21 … 13 14) 0 高田高女

▲中等學校籠球

京城師範 4―1 靜岡工業

▲一般男子卓球一回戰

曹明煥(朝鮮) 東 播 橫山(宮城縣)

金相赫(朝鮮) 3―2 久賀(福岡)

高專럭비法專勝捷

高專럭비戰의 法專對京城醫專戰은 二十八日 午後四時半부터龍山運動場에서 上野氏審判 法專킥어프로 열린바 十三對三으로 法專軍이 勝捷하엿다

法專 13 (5 … 0 / 8 … 3) 3 醫專

早慶野球戰에 若原投手出場不能

【東京電話聯合】日本野球界의人氣를 좃차지하야열린 早慶戰은 第一回는 降雨로中止 第二回는 同點으로 延長을 決정하고 二十九日에 第三回戰을 行키로되엿든바 早大若原投手는 二十八日第一回戰試合의 最終回에잇서서 慶應투수本가던진 死球에頭部打撲傷을입어 同國首時入院治療中이나 競技出場은 極難한모양으로 慶軍한一戰에 至하야若原投手가 出場치못함은 早大로서 큰 損失이다

延專校內運動 과祝勝會開催

朝鮮專門學校스포츠界의雄! 延禧專門學校에서는 校內運動을奬勵하는 趣旨下에 明三十日午前九時半부터 同校運動場에서 年例에依한 各科對抗競技及 校內大運動會를 열터이며 그間綜合競技大會에 優勝을 自祝하는意味에서 運動會가 끗난다음 祝勝會를열터이라는바 卒業生諸氏의多數參席을 바란다한다

運動界人事

▲呂運弘氏(朝鮮體育會 常務理事)綜合大會終了 人事次로本社來訪

▲金龍九氏(同上)同上

▲朱興根氏(同常務理事)同上

京城府吏等十八名 收賄事件豫審終結

收賄한現金만五千數百圓

有罪로全部公判에

경성부 용도계 물품구매의책임을 마튼 지위를 리용하야 경성부에 출입하는 고물상과 철물상과 결탁하야 삼년동안에 수백회로 다액의 현금의 뢰물을 바다먹고 수십회로 료리집과 청루에서 주색에 유흥하는 대접을 밧고 그장사사람들이 경성부에서 물건을 사가지고가는데와 또 그출입상인들로부터 물건을 비싼갑으로 사드리는등의 특별한 편의를 보아주엇다는 원경성부 리원 길전일부(吉田一夫)(?)지하룡웅(志賀隆雄)(?)대야일웅(大野一雄)(?)[illegible](?)등다섯명과 경성부출입상인 삼촌행사랑(三村幸四郞)(?)등 열세명과 도합 십팔명에관한 사기증회(詐欺贈賄)공무원인장위조문서위조행사수회(公務員印章僞造公文書僞造行使收賄)증회사기(贈賄詐欺) 사기증회범인은피(犯人隱避)수회사기방조(幇助)등피고사건은 그동안 경성지방법원 제삼예심계 등정(藤井)판사의담임으로예조중이든바이십구일에 유죄로 결정되여 십팔명을 전부 그법원형사합의부공판으로 넘기엿다

▲被告姓名=▲古物商 三村幸四郞(?)▲古物商 小菅作次郞(?)▲古物商 林主吉(?)▲元京城府書記 吉田一夫(?)▲金物商 原田熊三郞(?)▲西松育次(?)▲雜貨商 宮本末彦(?)▲雜貨商 齊木恒夫(?)▲雜貨商 網島茂市(?)▲金物商井內福太郞(?)▲金物商片山德一(?)▲印刷業 江里口義一(?)▲印刷業大塚榮(?)▲材木商中野多助(?)▲元京城府雇員藤城岩(?)▲元京城府掃除巡視 鏑田隆三郞(?)▲元京城府書記補 志賀隆雄(?)▲元京城府書記 大野一幸(?)

경성부리원 길전일부등 다섯명은 소화륙년부터 소화구년면직당시까지 그들이 각기경성부물품구매의 책임에잇는 지위를 리용하야 고물상 철물상 인쇄업자 잡화상등 경성부출입상인들과 결탁하야 그상인들이 입찰(入札)을 하는데 대하야 특별한 편리를 보아 주엇다는데 심지어는 회계과장의 공인(公印)까지 위조하야 뻔뻔히 찍어서 행사하엿다 한다 그러고 삼년동안에 전후수백회로 상인들로부터 뢰물을 바더먹은 금액의 총계는 예심정에서 자백한것만으로 사천일백삼십구전이나 되며 시내욱정(旭町) 신정(新町)서사헌정(西四軒町)등 요리집과 유곽에 불러가서 주식에쓴 유흥비(遊興費)도 오백칠십구원오십칠전이나 된다한다。 피고들은 하도 수업시 뢰물의 돈을 바다먹고 술을 어더먹엇기때문에 기억이 나지안는것도 만타한다한다 더욱이 장사사람들가운데는 길전일부의 안해에게 금사(錦紗)옷감과 명고옥(名古屋)특산띄(帶)도사서 바치고 그환심을 사기까지 한일이 잇다한다

警察飛行機兩臺 國境警備에增置

今年水害로水破된飛行機代充

─結氷期前에完備─

경찰과를압두고 국경일대의경비망확충에대하야는 경무국에서관계각도를 독려하야 공고한 정비진의준비를하고잇는데 평북경찰부에 비치(備置)한 경찰비행긔는 금번여름에 침수하야 사용이곤난하게되엿슴으로 다시두대를 륙군에서 불하(拂下)를바더가지고 신의주(新義州)를 중심으로압록강 상류수개처에 경찰비행장을 설치하야 경찰비행을 하는동시에 경찰관주재소로부터 각지시소에 련락하는 경비전화를 설비하며 또건너편 만주국경찰과 련락하는 전화도 설비하며 망루(望樓)도증설하게 되엿다한다

그리고이에 필요한경비는 십삼만오천원가량으로 십이월초순까지에는 전부공사가 끗날터로이것이완성되면 특별경비대의 정비 무긔의 구입등을하야 국경선일대의 경비진을 더한층강화하게될 터이라한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北海道의 南岸을 東進하고잇는 低氣壓은 그勢가점점 衰하고 北滿과 黃海道바다에도 弱低氣壓이 東進하고잇다 高氣壓은 北支那와오호-츠크海에 떠지고잇다 滿洲로부터 九州에 빼처서는 晴天、本州中部는曇天、東北地方以北은 雨天으로 좋흐리다

昨日最高 一七、六
同 最低 五、七
本日正午 一八、七

ユキワリミン

유끼와리밍

一個사실때마다

山田醫學博士의發見創製 雪割植物性 顏劑

유끼와리밍으로 한번홈치십시요

개기름 여드름 땀띄를解消함

여드름빼데 皮下의皮脂腺에 滲込하야色黑의原因을解消함

개기름 안흘느게 滲透力으로皮脂肪腺을收縮하야기름을개게하고살결을곱게하는藥效發揮

藥效眞正・品質絕對保證

[illegible]에서만發賣할뿐아니라 美雅한容器는 어느곳에서나 自由로쓸수잇는 便利한携帶容器를考案作成하엿습니다。

二十錢 五十錢 一圓

얼골씻는容器 進星

바다에山에

通勤、通學에、旅行에、淑女、紳士의美粧衛生에便利重寶스런無雙의新容器입니다

(一)映畵 觀劇 集會等에化粧고치는데絕好品

(二)바다와山에서한번얼골을씻치시면때와땀과不快를一掃하고洗顔以上의爽快한氣分이납니다

(三)汽車汽船旅中 얼골과손을한번씻치시면 [illegible]

(四)電車、뻐스에서내린後손잡이에서무든무서운病菌을[illegible]

(五)通勤通學한분은 能率增進氣分轉換하신데 使用하야效果百%입니다

얼골닷는容器 進星方法 全國藥店化粧品店에서特賣中

유끼와리밍을하나사실時는 景品으로서 어느분에게나빠짐업시얼골닷는容器를 進呈하여드립니다。萬一右景品付유끼와리밍을要求하신商店에品切된時는그店에서 付託하시면곳가저다드립니다 個人實時마다一個式드리오니 한분이몃개라도사실수잇습니다

進星品은이것입니다

東京高輪 原澤合名會社

시월이라 상ㅅ달!

고사떡세상

—싸전이부르는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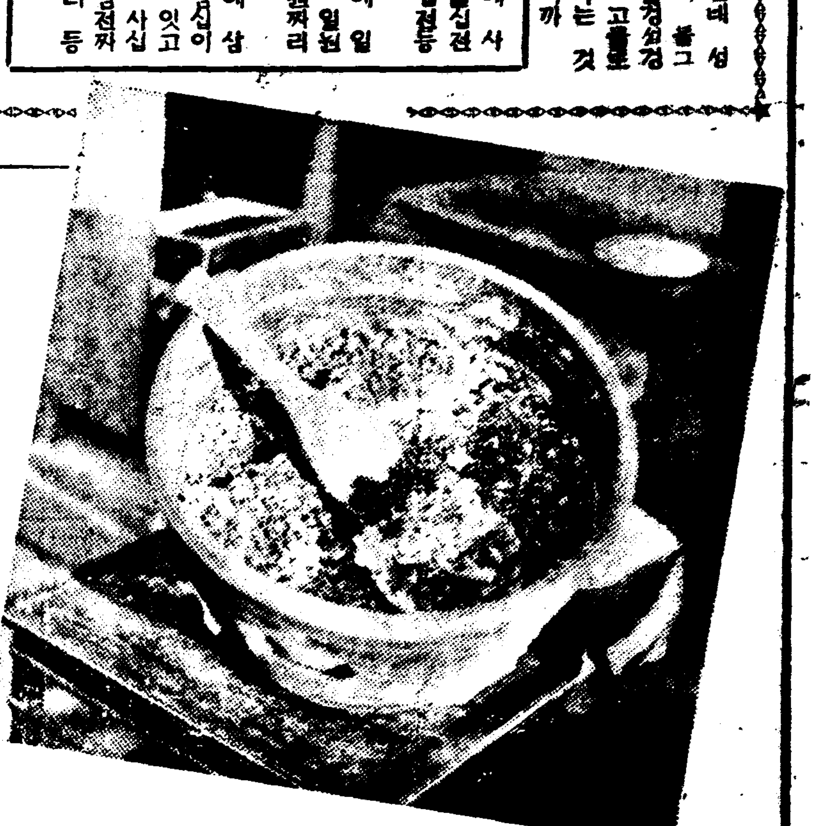
시월이라 상ㅅ달이 되얏습니다。성주님네 터주님네 뒤ㅅ간에는 최신(厠神)다락에는 다락귀신 선앙의 갖지김을 어떠데나 행지 깡그리 고사를 올려야 됩니다。그분네들은 사람과 달러서 밥보담도 떡을 질기시는지 자고로 고사에는 반듯이 떡을 쓰게 됩니다 항물을 빠려다 금ㅅ줄을 느린다 한날에나 삼일전부터 목욕재계의 치성을 드리는것이 원적이언만 근자에는 떡잔치에 지나지 안는모냥이어요。그야 모든 귀신도 게회를 종게회를하섯다면 그중의 일로 회야 나시지 안캣지요。화자님의 말을 드르면 시월상ㅅ달에 고사를 지내는 풍속은, 아조 례도벗천부터 잇서 왓습니다。오늘까지 고사떡의 모냥새가 그러케 설풍적은것도 녯날그대로 하느라고 그러지도 모르겟습니다。그러나 이왕 해 먹을 빠예야 좀더양전히 또 좀더 맛잇게 해먹으면 어햇소리까? 터주ㅅ님네 성주님네라고 반듯이 풀그레떡한 땃이나 설정설경한 풍을 그대로 고올로 해야만 잘 자신다는 것은 아니지 안습니다까

찹쌀 대두한말에 사원짜리 삼원팔십전짜리、삼원사십전등이잇고

멥쌀 소두한말에 일원이십전짜리 일원십전짜리 일원짜리 등이 잇고

녹두 회인한되에 삼십육전짜리、삼십이전짜리、등이 잇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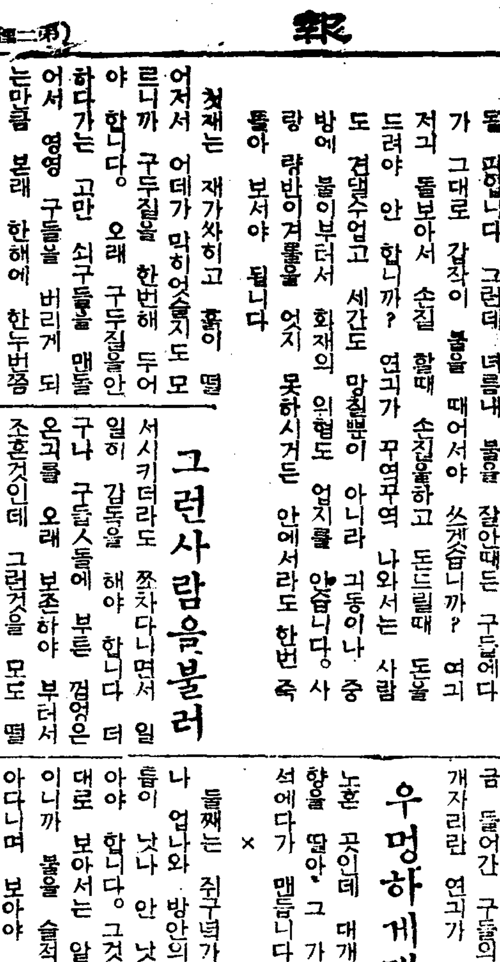
콩 회인한되에 사십오전짜리 사십삼전짜리、삼십오전짜리 등이잇습니다



家庭

한겨울을 뜨뜨시 지내기 위해서는 요새 구둘을살펴보시요

사람처럼 병들기잘하는 구둘ㅅ장



날이 치울사록 구둘의 신세가 고되야 갑니다 요사이도 하로 한때 군불을 때지 안하면 방이 썰렁하야 안기어렵지만은 얼마쯤 지나서는 아침 저녁으로 때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녀름내 불을 잘안때든 구둘에다가 그대로 갑작이 불을 때어서야 쓰겟습니까? 여괴저괴 돌보아서 손질 할때 손질을하고 돋드릴때 돋올드려야 안 합니까? 연긔가 꾸역꾸역 나와서는 사람도 견댈수업고 세간도 망칠뿐이 아니라 긔동이나 중방에 불이부터서 화재의 의혐도 업지를 안습니다。사랑 량반이거룩을 엇지 못하시거든 안에서라도 한번죽 돌아 보서야 됩니다

첫재는 재가싸히고 흙이 떨어저서 어데가 막히엇슬지도 모르니까 구두질을 한번해 두어야 합니다。오래 구두질을안하다가는 고만 쇠구들을 맨들어서 영영 구들을 버리게 되는만큼 본래 한해에 한두번쯤은 구두질을 하는것이 조흡니다。그런데 평맥이를 치고 다니면서 구두질을 하는 사람들은 날림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사람을불러

서시키더라도 쪼차다니면서 일일히 감독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구들ㅅ돌에 부튼 껌엉은 온긔를 오래 보존하야 부터서 조흔것인데 그런것을 모도 떨어 버리어서야 도리어 유해무익이되고 말지 안습니까?그뿐이 아니라 함부로 쑤시다가구들을헐어노치 말란법인들 잇습니까?구두질을 하는데는 제일필요한데가 굴ㅅ독이요 그다음이개자리요 그다이 아궁지로부터조금 들어간 구들의 초입입니다 개자리란 연긔가 모여나가도록

우멍하게맨들어

노흔 곳인데 대개 굴뚝의 방향을 딸아 그 가장 가까운구석에다가 맨듭니다

×

둘째는 쥐구녁가튼 것이 잇나 업나와 방안의 장판사이로 틈이 낫나 안 낫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그것도 물론 그대로 보아서는 알기 힘든 것이니까 불을 슬적 때다말고 돌아다니며 보아야 합니다。그래서 쥐구녁이 잇거나 틈이 잇거든 조히로 발를데 조히로바르고 흙으로 메울데 흙으로메우십시요。물이 나고

방안이매운다음

치운겨울에가서 그것을 하는이보담은 미리 보살펴;두는것이 오작 편하릿가?셋재로는 구들이 노는데가 잇나 업나도 잘 살피어 보아야 합니다。그여시 그대로는 알기 어려운즉 작난가튼나마 방안을 고루고루 밟아 보아야 합니다。그래서 노는데가 잇거든 고긔만을 뜻고 고치어 노토록 하십시요。다음날 아조문허진뒤에 고치는이보담 좀낫소리까?

조금은들리는것

은 이불가튼것을 싸노코 그우로부터 적은 떡메를 가지고 나려칩니다。그러면 장판도 아니 상하고 구들도 놀지 안하는수가 잇습니다。

×

석탄 아궁지는 물론이요 어떤아궁지든지 생철판으로 문을 해두어야 합니다。그래야 바람에 불이 날릴러도 업고 방의 온긔도 좀더 보존됩니다。

노란고구마에든 『비타민A』가만타

부인들과 애기들의조와하는고 구마는 『콜롬부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도라올때 『이사벨』녀왕 에게 선사햇다는 전설이잇습니다。

고구마의 주요성분으로는 전분(澱粉)이만허서『카로린』의중당의조흐며 또는가격이 헐해서 각금 주식의대용품으로사용하는 일도잇스나 담배질과 지방질이 부족한때문에 이것만을먹고는사려가기 어렵습니다

전분이외의성분으로는 섬유(纖維)가 상당히 포함되어 변비증잇는분이먹으면 대단히조흐나너머 과식을 하면 배ㅅ속에 까스가 생겨서 괴롭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알카리성』식료품이니까 쌀밥에 쇠고기와 생선을 먹으면 산중독증(酸中毒症)의 예방이 됩니다。

그러나 긔진이 약한 사람이 가리웅이 만흐니까 너머 만히 먹으면 체내의 식염이 업서질 념녀가 잇습니다 그래서 흔히 에 고구마나 감자에 소금을찍어먹는데 이것이 합리적 방법입니다。

비타민류로서는『에이』와『삐』가 포함되엿고 더욱히 황색고구마는 다량의 『비타민에이』가 포함되엿습니다。

詳細追後發表

第三回秋期音樂大會

『時日』十一月二日(土)下午七時半

『場所』朝鮮日報社大講堂

出演樂士 金元福、玄濟明、洪蘭坡 蔡善葉、朴景嬉、京保合唱隊

主催 京城保育學校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演藝 沈淸傳의 토-키-化

조선사람으로 春香傳을모를사람이업겟지만 沈淸傳모를사람이 또한업슬것이다 그럼으로 이沈淸傳을 映畵로맨든다면 興行價値는 百퍼-센트。─여기에는 유명한朝鮮키네마社에서는 발서 發聲映畵『沈淸傳』을 製作着手에잇다 脚色은梁柱南、監督은南彪、撮影은李勇進 錄音은矢野正一、出演者는

文秀一 金蓮實 李慶善 金英淑 梁哲 南宮仙 金振門 高英淑 金寒影 洪海鵬 李英椿 (劇團藝苑座一同 援助出演外 엑스트라)

◇午后六時 少年小說自作朗讀 田榮澤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任叔宰

◇同七時三〇分 農村特別講話 (一)農産物의商品化 金雄珏

◇同八時 花草四日里外 一、花草四日里 二、報念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五、개고리打鈴 鄭柳色 朴菊花

◇同八時三〇分 (京) 合唱ー京都同志社榮光俱樂部ー講堂으로부터中繼ー메시아『救世主』헨델作曲 獨唱 소프라노 町內禎子 獨唱 알토 齊藤靜子 獨唱 테너 內田榮一 獨唱 바리톤 大田黑養二 合唱 同志社混聲合唱團 伴奏 同志社심포니-오-케스트라 指揮 森本芳雄

◇同九時 同心曲 河龍男

三十日 (水)

◇午後〇時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鈴 三、신아위 四、굿거리 奚琴 金德鎭 大笒 方龍鉉 細笛 韓成俊

◇同三時一五分 趣味講話 [illegible] 丁元燮

◇同六時 童話와童謠劇 一、[illegible] 二、[illegible] 마음의[illegible] 全一景 [illegible] 配役 [illegible] 仙女…金[illegible]玉 二、[illegible]獨唱 (가) 어미새 (나) 옛이야기 (다)지팡까지 (라)을바생각 두루미會 指揮 金相德 効果 姜又學

◇同六時二五分 記念講演 敎育勅語渙發記念日을當하야 曹在浩

◇同七時三〇分 農村特別講話 『메뉴』(敎育과包擧) 金雄珏

◇同八時 레뷰-漫劇 멍텅구리 第二世五景 音樂指揮 徐永德 合唱指揮 姜德子 音樂伴奏 [illegible]

演出 鄭寅星

配役 狂言師이(家庭敎師)裴順子 主人(永男의父)......李英子 마나님(永男의母)......裴龜子 맹(永男의누이동생)洪淸子 永男(도령님)......朴順子 大學生(隋동이의동무)裴松子 大學生(同)......宋光子 (歌姬) 朴朝子 孟禮子 沈孝子 吳孝子 裴朝子

◇同八時三〇分 노들江邊外 一、短歌 二、노들江邊 三、밀양아리랑 四、靑春歌 五、사발가 六、노래가락 金仁淑 伽倻琴 李日善

◇同九時 絃樂四重奏 延禧四重奏團

十月三十一日(木)

◇午後〇時五分 (東)木曜코사-트 오페라愛人들 篠原正雄編曲 에드가르도(小野博) 엔리코(楠引修) 루치아(平井美奈子) 라이몬드(山本春雄) 아리사(宮崎妙子) 아르투-로(井上賢也) 만루아의侯爵(松山芳野里) 질다(井上게이子) 핑카론(平間文壽) 蝶蝶(船越富美子) 루돌프(永田絃二郎) 미리(矢追婦美子) 마르세르(鯨井孝) 무젯타(船越富美子) 알프렛드(小野博) 베올렛타(平井美奈子) 라다메스(永田絃二郎) 아이-다(長門美保) 新交響樂團 指揮 篠原正雄

◇同三時一五分 趣味講話 眼鏡이야기 金熙俊

◇同四時 쥬-쓰 吹奏樂 一、[illegible] 二、[illegible] 三、急速行進 四、[illegible] 五、[illegible] 指揮 WE노-벨

◇同六時二五分 [illegible] 徐相天

◇同七時三〇分 農村特別講話 (三) 果實과蔬菜의貯藏

◇同八時〇分 [illegible]이야기 金[illegible]

◇同八時三〇分 [illegible] 一、[illegible] 二、[illegible] 大丈夫 [illegible] 金[illegible]

◇同九時 [illegible] 一、[illegible] 二、지름 三、[illegible] 四、[illegible] 李文[illegible]

曆

十月三十日(水) 舊十月壬丁亥(大)初四日 己卯·土·壁·執

●祭祀·嫁娶·安葬에宜함

●立冬八日(舊月十三日)

●小雪二十三日(舊月廿八日)

聖畵 【15】

李孝石 作 安夕影 畵

이약이는 끗끗서야할것이나 질긴몸음이 소생된까닭에 더 계속된다。소에빠진채 바위에 몸을 부드치거나 영영 숨지안커나 하얏든들 그만이엇슬것을 공교롭게도 흉은 공치하게도 몸은 기리로 살녹가티 물속에잠겻다가 기픈 타격도 상처도 밧지안코 다시 쑥솟으면서 물우에떠올랏든것이다。물론 그당장의감각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는 전혀 긔억속에는 업섯고다시 눈이뜨엿슬때는 러관방목판에 누어잇는 자신을 발견 하얏슬뿐이엿다。

의사가 막 단여간뒤엿다。새요우에누은 나의주위에는 시중드는 하녀들의 오락가락하는그림자가 어지럽고 알콜냄새 약냄새가 코에맛첫다。팔에는 주사를마즌 뒤ㅅ자리가 여러군데요 머리와다리에는 붕대가 친친감겨 잇섯다。무거운 화차의맹실가티 화로에는 숫불이 글 이글하고 주전자에서는 김이 무럭 무럭오르며 천정에는 여러폭의 축이수건이 걸려잇다 물론 그 모든 어수선한사이로 무엇보다도먼저 유레의자태가눈에띄인것은 두말할것업다。

문득 눈을뜨고 둘변거리기시작하얏슬때 유레는 선듯 머리마테 다가안즈며 나의겨드랑미테서 체온계를 뽑앗다。들여다보드니 금시에 긴장되엿든얼골이 풀리며 깃거게 나를바라보면서 체온계를흔들어 수은을나린다。

『됏서요 평온에갓가워왓사요』

되지안허야할것이 되엿거든──업서야할목숨이 부처진것은 나에게는 뼈저린 비꼬움이엿다。이루지못한 비극은 희극보다도 더 우숩광스러운것이다 미치광이가튼 주재를 망대가튼 꼴을 유레의아페 틀어내노키가 경연하고 붓그러웟다。물론 차라리 물속에 고시랗히 꺼저버렷드면 얼마나 다행이엿슬까。다시 살어낫자 거사이전의 그감정 그형편의 연장이외에 아무것도 오지는안흘것을。

『평온에가깝다는것이 나를죽복하는말이요 그놈의체온계를 분지러버렷스면。』

『안정하세요 흥분은 금물이요』

유레는 친착하게 목소리를부드럽혀 나의감정을 문질르고가라안지라 애쓰는눈치엿다。

『허수아비는 논가온데나 세우지 산송장은 무어에쓴단말요。』

말도끗나기전에 나의 비웃음의태도를 경계하는듯이 유레는

『생명을멸시함은 사랑을성취하는 도리가 아닐것예요。같이좀더 참으면서 정성스것 걸어감에 갑시잇지안흘까요。』

『무슨갑시란말요。』

밤눈하면서도 언제인가 호텔방에서바라본 밤교회당의 검은 십자가가 짜장 암길에노엿슴을 문득 깨달앗다。무덤아페 세운 십자가가 죽은후의운명을 대신하야 생전의암길을 가로막은것이다。

『반가운소식 전해드릴까요。』

무거운침묵을 깨트리며 유레는 어조를 갈앗다。

『놀나실까요。──란야가 마른편여관에 와잇서요。』

별로놀나지도안코 천연스럽게 듯노라니 유레는 어적게변이일어낫슬때 우연히거리에서 란야를맛낫다는것 가티여관까지달려와 누구보다도만히 나의시중을 들엇다는것 얼마안잇스면 차저올법하다는것 을 이약이하얏다

말하는 그의표정을 살필필요도업섯스나 극히 천연스럽고사실 반가운듯한 말씨엿다。친한동무의소식을말하는 그런어조엿다。반다시 발행을하는것도갓지안흔 어정한태도엿다。그러나 그것이 물론 나에게는 반가운일이여서는 아니된다。작작코 틀엇다。

얼마안되여 정말 란야가 왓다 세사람의태도는 서로아무속입도업는듯한 능청마즌것이엿다。

家庭醫學

女性의대하증은 엇던것이며 그原因과害毒은?

—누구던지읽으시라—

●대하증의 原因과治療法

보통으로 부인병 부인병하지만은 부인병에도 그종류가 만습니다 그中에도 제일만흔병이 대하증이라는병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가치 대하증이라는것은 女性의 生殖器에서 이상한물이 흐르는것인데 사람을따라 혹은 만흔물가기도하고 혹은 코물갓기도하며 또 피가석기물이 흘으기도하며 분량이만키도하고 적기도합니다 이런차이는 부인의體質과 병세에따라서 생기는것입니다。

이무서운 대하증이생기는까닭은 대부분 淋疾이전염되거나월경때에 부조섭으로 무서운 細菌이 局部에들어가서 상처를내는것입니다 맛치 手足을다친때미균이들어가서헐고 고름이 나오는것과갓습니다 원래 부인의 국부는 조직과 온도와 습긔등이 細菌의 번식에 천연으로 적당한탓으로 남에게 전염될만한 특별한 긔회가 업다하드래도 미균이 붓튼 손이나 조히나 옷이 그곳에 닷기만하여도 즉시 안으로 퍼저들어가게됩니다 어떤까닭으로 남편에게 조치못한 性病이업는집 부인에게도 어떤병이 잇스며 또는 월경긔에 어르지 못한 어떤 처녀에게도 이가튼 병이 생기기업습니다

엇지되엿든지 이대하증이 잠복르게되면 벌서 자궁병이 잡혀된 증거입니다 발병당시에는 비록 안색이 여전하고 몸이 간강한듯하나 하로 이틀 날이갈수록 파석이되여 무서운 고질이되며 차차 살이 빠지고 피가 잘 통치못해서 회색이 낫부고 따라서소위 냉증이라는것이 생기는동시에 병은점점깁히 깁히안으로들어가서 치료하기가 절대로 어려운데까지 빠지게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항상출조심을잘하시고만일 이병에걸이거든 조곰에즉시처료하여야합니다 그리고다소오래된병이라도 조흔약을선택하야 자택에서섭섭것끈힘업시계속하야복용하시면 틀림업시완치할수잇습니다

이외가튼子宮病을 治療하기에第一適當한內服藥『命之母』가잇읍니다。이命之母로모든子宮病을全治하시고愛兒를 出産하신 實例는 世人에好評과體狀이證明하오니 여러분 家庭에 子宮病患者가 잇으면 하로바삐 命之母를 服用하시고 全快하심을 바라나이당

九年間신고하던 子宮病이 全快되야姙娠햇소

平北寧邊郡吾北面…金鳴鎬氏夫人

나는月經不順과 대하증으로結婚後九個年동안 신고를 하던中 千萬가지藥을 다써보앗스나 조금도 差度가업서서 비관을하던中新聞廣告를보고 命之母가子宮病에 有效하다는 記事를보고最後로一次注文하야服用햇더니 얼폴에 화색이도고 원긔가나며허리와 배암흠이낫으며 대하증이 차차줄고월경이고르게 나오더니 二三삭후에 姙娠하야 出産하고 不和하던 家庭이 平和롭게되니 命之母가子宮病에絶對的有效한것을信用하고 世上에 宣傳하는中이올시다 (寫眞은 本人)

命之母는 全國有名藥店에서도 販賣하지만特히 本舖로 注文하실때는 藥代金을 振替東京五〇五〇番으로、또는 小爲替로 보내시는것이 第一安全하고 便利하오나 適合한藥을 指定못하시는때는 病勢를 자세히 記入해주시면 代金引換으로 適當한 藥을付送합니다。

今日 이新聞을보시고

帶封하야 五厘切手붓처서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 命之母本舖로 보내시는분 또는 藥書로 申込하시는분에게 三大醫學博士가 자세히쓴 婦人病自宅治療書와 命之母의 說明書를노구에게던지 無代進呈합니다

婦人病良藥

◎命之母의主治効能◎

月經不順 白帶下症
子宮出血 赤帶下症
下腹痛 手足冷症
頭痛腰痛 子宮痙攣
히스테리 氣鬱 卵管炎
卵巢炎 貧血症
臨神經衰弱과 産前産後의 婦人에게大効함

—藥價—

六日分 壹圓
一三日分 貳圓
二〇日分 參圓
三五日分 五圓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
命之母本舖 ● 笹岡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二八八七番

景品附大特賣

キッコーウリー醤油

宮內省御用達 野田醤油株式會社

キッコーマン醤油

十六立樽一樽 又는 八立罐二罐 御買上每에 ベルベット鹼石 一函(三個入) 빠짐업시드림

駱駝山 (26)

駱峯下의李浣舊居

湖岩

옛날 李浣大將이 駱山미테살엇는데 그집터가 어대인지未詳하나 麟坪大君계시든 夕陽樓에서 멀지안흔 곳에 잇섯다 한다 李浣大將이라면 누구나 모르는이 업슬만큼有名하고 또그에게對한 逸話도 만타 孝宗大王께서 北伐의雄圖를 품으시고 尤庵宋時烈을 謀士로 李浣을大將으로 삼아 隱密히 軍備를 다스리실새 한번은夜半에 갑작이 命이게시거늘 李浣이 紗帽冠帶로 드러가려한대 그妾이 말하되 深夜에 부르심은 반드시 무슨일이 잇스니 甲冑를 속에입고 戎服을 거게 입으소서 李浣이 妾의말대로 甲冑우에 戎服을입고 드러가니 闕門을드러서자 갑작이 燭불이 꺼지고 화살이 비뿔드리듯 한다 이때孝宗께서 李浣의膽力을 시험하시기 爲하야 이처럼 하심이라 그러나李浣이 甲冑를 입엇슴으로 화살속을 通過하야 御前에 나가니 孝宗께서 크게 稱賞 하시고 이로부터 더욱더 信任이 깁흐셧다

李大將은 宋尤菴과 함께 孝宗의知遇를 바덧스며 尤菴의집은 宋洞(現惠化町)에 잇섯고 李浣의 집은 駱山미테 잇섯슨즉 그때에도 멀지안켓만 宋李사이에 交涉이 잇슨것은 별로 듯지못햇다 오늘날 傳하는 逸話는 흔이 麟坪大君과 關係된것으로 孝宗의舊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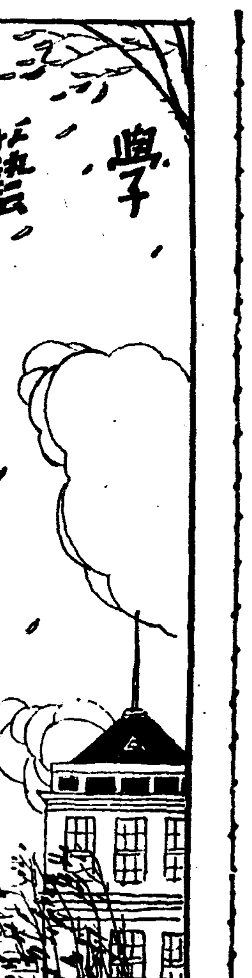
東平尉 鄭載崙의(公私見聞錄)에는(公은李浣)의 집이 東部駱山下에 잇섯스니 麟坪大君第도 또한 그同里에 잇섯다 公이大將이 됨에 미처서는 급급히 집을 安國坊(洞)에 옮기며 말하기를 將兵의臣으로 王子와 同隣하야잇슴이 不可하다 하매 이말을 듯는이 모다 깁히 歎服 하엿다」東平尉는 李浣을 推譽한 當時名相 鄭太和의 아드님 이니만치 그의이記事는 반드시 根據가 잇는 信憑이겟고 決코 荒唐浮說의 類가 아닐 것이다 엇쨋든지 自來

國規가 嚴하야 王子와臣下가 함부로來往하지못하엿는바 李浣은 일주麟坪大君집婚禮式에 招待를바덧스되 굿게辭讓하야 갈오되 朝臣이王子께 사사로 가봄은것도 不可한데 하물며 武將이오릿가 하고 가지 아니하엿다 그後李浣이禁上에서 麟坪大君을 맛내매 大君이 馬를 머물으고 보기를 請햇스나 李浣은 이때도 恭順히辭讓하고 避해서 갓다얼마를 지내서

誣告하는者가잇서 李浣이麟坪으로 더부러 謀反한다하거늘 上監께서 껄껄 우스시며 내가 이미李浣이 집을팔고 移徙한숨까지아는데 그것이 무슨말이냐하시고 置之度外하셧다한다 이로보면 李浣이 信任도 두터웟지만 그人物이膽大하고도小心하야 조금도 失手가 업는模樣이다 그가일쉭少時에 深山에드러가 산양하다가盜賊의巢窟에서 함아드면 죽을것인데너무나 壯大한때문으로

盜賊이 그만 氣가 올러서 兄弟의約을 맷고도리어 李浣에게 奕人과寶物까지 다주어 내보내며 하는말이 그대는 將來에 반드시 將相이될터이니 나를 닛지나말어달라하고 그盜賊도 어대로인가 가버렷다 그後盜賊의말대로 李浣이 과연大將이 되어 큰權勢를 잡고보니 녯날自己와 結義한그盜賊이라 참아 죽이지 못하고 上監께 알외여

釋放하엿다는 이야기도잇다 勿論이이야기를 그대로 미들수업스나 李浣할때 許生과 朴鐸의 이야기와 아울러 때여노흘수업는 이야기다 李浣大將은 最後에 右相까지지내스니 武將으로 政丞한이는李浣以前에는 五人이 잇섯스되李浣以後에는 一人도업섯다 漢陽朝에 잇서서 武將政丞은李浣으로써 끗막음을 하고말앗다



現下朝鮮語의重要論題인 『ㅎ』音에 對한小論 ⑥

洪起文

나는 다시 根本의 論題를차저서『ㅎ』바침의 問題로 돌아가려고 한다。『ㅎㄱ』『ㅎㄷ』等의 合音을 檢討한 것도 실상 그 것을 究明하기 爲한 準備工作에 지나지 못 한다。그러면 默音되는『ㅎ』音을 바침으로 씀수 잇는가? 바꾸어 말해서 바침은 꼭

發音되는 字에 限하는가? 都大體 나는 바침의 特徵까지도 究明하야왓지만은 정작 바침이 무엇이란 것은 全然 究明하지 안 햇든 것이 아닌가? 새삼 스러우나마 疑心하노니 바침이란 果然 어떠것인가?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바침이란 別것이 아니라 곳 母音아래 오는 子音이다。正音의 書寫方法이 母音아래 오는 子音을 그 母音에바처어 쓰기때문으로 그러한 名稱이 생긴 모양이다。그럼으로 訓民正音의 初中終聲中 終聲과 바침은 同一한듯 하나 얼마쯤 서로 다른 것을 이저서는 안 된다。即 바침은 書寫方法을 가지고 이름지은데 대하야

終聲은 發音의 順位를가저 이름지은 것이다。아니 그러타면 적어도『ㅎ』音은 終聲으로서 서지못하는것이 事實이다。왜 그런고하니 默音되는『ㅎ』音을 終聲에 包攝시킬수는 업는까닭이다。옳다。問題의 肯綮은 바로 이곳에 노히어잇다。그러나 朝鮮語가 몬저 생긴後 正音은 그朝鮮語를 標寫하기 爲하야 생긴것이 아닌가? 朝鮮語의 慣習上 母音아래 默音의『ㅎ』音이 存在할수 잇다면 正音으로서만은 그存在의 權利를 剝奪치 못 한다。더구나 訓民正音을 字字句句이 뜨더보고 훌터 보아도 母音아래는 반듯이 終聲으로나는字만을 바치어 쓴다고

制限한 일은 업지안한가? 訓民正音거긔에도 發音順位로본 終聲과 母音아래로 오는 子音의 區別을明白히 해주지 못한 것은 遺憾이로되 오즉 終聲이란 語義에 拘碍해서 만흔『ㅎ』바침을 隨意로 除去할것이 決코 아니다。

×

英語에서 (it is)는 흔아『이、티스』처럼 發音하고 또 그와가리(did you)는 흔히『듸듀』처럼도 發音한다。그 것은 우의人말의(ㅌ)나 (ㄷ)가 아래人말로 옴기어 오는 것이다。萬一 이런 例를 찻는 다면 佛語보담 더 조흔 말은 업슬것이다。(Mon ami)는『모나미』로 發音하고(Bel ami)는『베라미』로 發音하는것가리

一定한 境遇의 우의人말 子音은 아래人말의 母音과 連接되는 것을 아조 定則으로 안다。그뿐이 아니라 佛語에는 母音아래 默音의 子音을 달아 가지고 잇다가 딴 말과 連接할때 다시 發音되는 수가 만타。위선(Grand)은『그랑』이라고하고 (Petit)는『뿌띠』라고하야 (d)나 (t)는 全然 默音이 되지만은 (enfant)等의 말과 連接해서『당팡』『땅팡』이라고 하야 그 默音의 (d)나 (t)音을 다시 發音하게 된다。이 佛語의『리에송』이라는 것으로 佛語의 獨特한 慣習이다。이러한 慣習을 아지 못 하고서

母音 아래 默音의 子音을 除去하려고 하야서는 적지 안 한 실수다。

×

朝鮮語에도『불여호』는『뷰려호』로『솔옷』은『소롯』으로 또『옷이』는『오시』로『밥을』은『바불』로『사람이야』는『사라미야』로 實辭와 虛辭(토)사이에는 그러케 내는 것이 오히려 定則이라고 볼수 잇다 그런즉『ㅎ』바침도 제소소로는 默音이라고 하지만은 아래人말의 母音과 連하야 다시 날人수도 잇고 또 아래人말의『ㄱ』『ㄷ』『ㅂ』『ㅈ』等子音과 連하야『ㅋ』『ㅌ』『ㅍ』『ㅊ』의

音變도 이러킬수 업지안할까! 即 朝鮮語에서『리에송』의 慣習을 가지지나 안하는가? 果然『쌓아、쌓으니、쌓고、쌓지』『낳어、낳으니、낳고、낳지』等으로 보아서 母音아래 默音의『ㅎ』音을 發見할수 잇다。『가고、오고、잡고、먹고』와『가지、오지、잡지、먹지』와가치 다른 모든 實辭와 連하야『고』나『지』로 내든 實辭가『싸코、싸치』『다코、다치』와가치『코』나『치』로 變하는 것은 그 實際의 [illegible] 說明하는 것이다

×

이와 가튼『리에송』의 現象을 日本學者들은連音이라고 辭典안다。나도 그들을 딸아서 連音이라고하야 두엇든것이다。連音의 法則아래 오즉『ㅎ』바침만이

存在의 權利를 가진다。더러 두子音의 바침도 存在의 權利를 가진다。왜그런고하면 終聲으로는 勿論 한個以上의 子音을 發音하지 못하지만은 아래人말과 連하야 그 나머지의 子音도 發音할수 잇는 까닭이다。아니 月印江曲에도『값바는가온데니』『ᄀᆞ가리기』하니 하야 두個의 바침을 쓰고 잇지 안 한가? 萬一 終聲으로 내는 音만을 바침으로 쓴다면『값』『ᄉᆞᆰ』의『ㅅ』音은 어떠케 낼것인가? 아모래도『가온데』나『가라기』와 連하야『까온데』『까라기』의 音變밧게 더 이리키지 못 한다。即 連音으로서의 存在權利를 가지는데 지나지 안는다。然즉의 發音的理論보담은 산 言語의 說明이 第一이닌가? 하물며 正音의 代表的文獻도 그 然즉的理論을 裏書지 안함에 엇지하랴?

가을의觸感

〈詩〉…… 朴喜南

九月이라 떠나가는
南國의 길손이
이땅의 愛着을
이저버리는 ── 지금은 가을

× ×

벌레소리 끄친다 나는 풀닙밋헤는
가을의 엽모양을 凝視하는 詩人이 잇다
追憶의 무덤가에
필럭이는 梧桐닙 하나 둘 ──

× ×

한가로히 노젓는 나루人사공의
하품속에서도 느껴지는 가을의觸感──
꿋업시 푸른 湖水가에는
빨려빠진 나무닙들의•自殺이 잇다

× ×

러뷔인 白砂場에는 나어린 길손하나
새파란 哀愁와 꿋업는 抱擁을 맛보고잇고
늙은 포푸라 밋헤는 가을의 前衛兵하나
철업는 당나구 귀에 戲弄을 한다。

追慕仙源公

江都遊記……(五)

鷺山 李殷相

江都에 가을비 하룻밤이 지나간 十二日의아츰 나그네를爲하야 날은다시 밝앗습니다。

지금 나는 洞中路傍에잇는仙源相公忠義碑아페서서 三百年前 仁祖丙子亂의 恥辱的歷史를 생각하고잇습니다。

여기 이仙源相公은 當時宰相 金尙容으로字는 景擇이오 明宗十六年(西紀一五六一)에나서 三十二歲의때 宣祖壬辰年에

(兵)亂을 避하야 이곳으로와 仙源里에 寓居하엿슴이 因하야 그號를 仙源이라 하엿습니다。廟朝에 歷任하고 位가宰相에 올라 士流의標的이 되엇든이로 七十三歲、仁祖丙子의亂에 다시 이곳으로 왓습니다。

그날의歷史를 詳述할것까지는업거니와、大綱만 말한다면 그때에 王은 南漢山城으로 蒙塵하고 嬪宮과 鳳林、麟坪大君과 嬪宮들이며 大臣의妻子들은 이곳에 避亂하고잇섯습니다。

當時의首相 金瑬는 江都의念慮업슬것을 確信하고 그아들慶徵으로 江華防守의 大將을삼고 李敏求로 副將을삼앗더니 慶徵은 驕傲하고 敏求는浮薄하야日夜에

(泥)醉하므로 相公은 串津防守에 힘쓰기로勸하엿스나 그들은 어리석게도自恣하야 天作으로 險固한곳이니 날지안흐면 들지못하리라하고 듯지안하던것입니다。兵火가 門바게 닥쳣건마는 醉하야 놀고만 잇섯스니 하늘이

이를萬一 罰주지 안햇더면 하늘을 뉘가일러 公正하다할것입니까

江都 이에 무너지매 相公은 家人과 訣別하고 南門樓上에 올라가 싸하노흔 硝黃우에 안자 불을노하 스스로 燒死하니 그 最後가 이러하엿습니다。

仙源相公의 平素事蹟이 뛰어난배 업고 이제또한 이가티죽엇슴도

(壯)할것 업것마는、살아 사로잡혀 恥辱의길을 것는것보다는 훨신더 榮光스런 일이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가입속이『一抹雲山孤島外、萬家煙火夕陽中』이라 노래하야 閑適의時間을 가진일이 바이업지는 안햇다할지라도 壬辰、丙子의 兩大戰役을 치른사람中의 一人으로서 國事로 잠못든적이또한 한두번만이 아니엇던것입니다。

지금傳誦하는그의時調中에 佳什으로 남아오는노래──

사랑이 거짓말이
님날사랑 거짓말이
꿈에와 뵈단말이
긔더욱 거짓말이
날가티 잠아니오면
어늬꿈에 뵈오리。

라한一首로도 그의忠心과苦情이 어떠하엿던지를 짐작할수가 잇습니다。

金公의事蹟은 대개이와갓거니와、當時의史實을 생각할때 무엇보다도 이즐수업는것은

(急)하엿슴에도 不拘하고 遊蕩으로 일삼아 雖時의 쓴잔을 뭇시안흐면 안되엇던그것입니다。事實 오늘날에잇서서도 먹고놀기를 조하하는것이 朝鮮사람의 重大한病弊라하려니와 朝鮮史를 뒤저노코 어느時代에든지 曲宴遊興이 가저온 結果는 悲慘한滅亡이엇던 것이니 어찌 江華島를 陷落케한 金慶徵一人에限하야 꾸짓고 말 것입니까。

그러나 이런일에 언제나 우리는 생각하는것이 잇습니다 그것은 游蕩을 일삼는 支配階級을 向하야 民衆은 언제나正義를 부르지저 그친일이 업섯다는것입니다。

이江華島에서 그一例를 볼지라도 저

(肅)宗 六年(西紀 一六八〇)에 이곳留守로왓던 金昌集이 南門樓를 重修하고 落成宴을 채렷슬때에 어떤 無名一士가 지나가며 詩를지어 座中에 던젓스니 그詩에 하엿스되

一番長江萬石門
天教形勝護東藩
追思丙子年間事
幾斷王孫塞外魂
今日諸公休進酒
當時大將好傾樽
書生袖裡鳴三尺
欲向陰山灑舊冤

이라한것입니다。『여기비록 天險한곳이라할지라도 丙子年일을생각해보오。塞外에 멀리간 王孫의魂이 몃번이나 끈혓던지 여러분 오늘 이자리에 술먹지마오。當時에 大將이란者ー

(술)잔기우리기를 조하하엿소。나는비록 書生일지라도 내소매속에우는 三尺劍으로 舊冤을 씻어보려는것이오』라는뜻의 노래입니다。

그리하야、그선비는 갈길이 바뻐다하며 일어서 가고 金昌集兄弟도 그날의잔치를 깨어버리고 말앗습니다。

毋論 晨君、三還三諫의 良心잇는 諷諫도 快한일이 아닐수업지마는 無名한 一詩人의 義氣잇는 노래야말로 더快한일이라할것입니다。(續)

(寫眞은仙源先生殉義碑(南門)과筆者)

民謠研究

慶北民謠의 特異性 ⑧

金思燁

鴛鴦枕 잣버개는
두리비자 하엿드니
혼자비기 외얼이고
알숨달숨 무자이불
두리덥자 하엿드니
혼자덥기 외얼이고
얼매만치 울고나니
쏘이젓네 쏘이젓네
(沼)
비개머리 쏘이젓네
그걸사 쏘이라고
기우한쌍 오리한쌍
쌍쌍이도 나라드네。
(探地漆谷郡石積唱者一老婆)

E 採菜歌

陰五六月이면 들나물 山나물이 盛할때이다 處子들은 處子들끼리 안악내들은 안악내들끼리 三三五五 떼를지어 새벽일죽이 點心을 싸가지고 山으로 들로 나물하러간다 집살님사리의 拘束을떠나 自由로운곳으로 하로의 野外散步兼해나가는 이나물사냥은 가장즐거운 일의하나일것이다 採菜에關한노래는 그 數가만흔中에 그中代表될만한것으로 다음의 노래를든다

西門밧게 徐處子야
南門밧게 南道令아
나물하러 가자시라
徐處子신 서푼주고
南道令신 두푼주고
첫달울어 밥해묵고
시해울어 질떠난다、
바람분다 끌로가세
비가온다 재로가세
올나가면 올꼬사리
이山저山 번개나물
머리끄래 댕기나물
상투끄래 동곳나물
뱅뱅도는 돌개나물
빗조흔 배벳추나물
오리도리 삿갓나물
쫄기조흔 미역초
맛조흔 꼰두소리
보기조흔 호무치
방구새이(岩隙에) 더덕나물
니리가면 넓꼬사리
그걱저럭 해가지고
시북보에 귀를마처
물조흔 약물내기
照心요기 하고가세
徐處子밥 재처보니
八月보름 햅쌀밥에
徐處子찬(饌)재처보니
三年묵은 더덕지요
南道令밥 재처보니
五六月 보리밥에
南道令찬 재처보니
三年무군 등개장을
南道令밥 徐處子묵고
徐處子밥 南道令묵고
(採地永川郡臨皐面)

F、自嘆歌

自嘆歌에 屬하는노래로 寡婦의 哀愁를읊흔것이잇고 나면서부터 不幸한環境에 태여낫다가 不幸한 죽음을한다는『李生員내맛딸애기』라는노래 獨宿空房못하여 子息을두고 男便을차저 夜三更에다라나면서 自己의 自身를 우는노래가잇다。

民謠는 外形에잇서서는 大衆의 言語로써 表現함을 要하고 本質에 잇서서는 그들의 感情이 담어 잇지안으면 안된다 民謠에 이條件이 如實히 具備되여잇슬때에 버릴수업는 愛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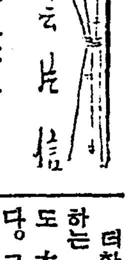
을 그노래속에는 사람의마음을울흔드는 힘이잇다 다음에적는노래는 하냥가튼男便의 몸에 泰山가튼重病이드러 먼곳으로 가서藥지여다가 다리는中에 途路의疲勞에 짓치여 깜박잠이들어 다시깨여낫슬때에는 藥湯罐이업어지고 男便은 죽어잇섯다 눈물로 그겨울을보내고 봄이와서 日氣가따뜻하자 行商을나서 八道를 도라단여도 죽은男便을차즐바이업다는것으로 素朴單純하것만、그哀切한 野調에는눈물을자아낸다。

하날가튼 가장님에
태산가튼 病이드러
월자팔고 죽자파라
때득산의 약울지어
청홍화리(靑紅火爐) 벽란닷에
약탕관을 거려노코
무진법의 잠이드러
깜짝놀라 깨다르니
님의목숨 간곳업고
약탕관은 벌어젓네。
비방三尺 님은방에
獨宿空房 홀로누어
팔을비고 누엇스니
흘으느니 눈물이요
자아낼사 한숨이라
누엇스니 잠이오나
안잣스니 님이오나
그럭저럭 歲月如流
冬至섯달 다보내고
三月春窮 當到하니
山은놉고 골기푼데
술피우는 저杜鵑은
우리님의 넉실는가
남을보면 시침떼고
날만보면 술피우네
선들선들 부는바람
우리님의 숨결인가
청연항에 꿈여지고
入道江山 다도라도
우리님은 못볼너라

指紋에代用할 新法發見

【우티카『뉴ー욕』州發】 指紋은 犯罪搜査上에 가장 貴重한 資料로되여잇스나 最近犯罪者가 그指紋을 抹殺하기 시작하야 藥品으로 抹殺한다든지 하면 아못작에도 쓸데가 업는것이다。그럼으로 各國의 學者는 指紋의 代用으로할 새로운 搜査方法에對해서 硏究를거듭하고잇는바 最近米國이 이方面에 先鞭을 하게되여 새로운方法을 發見하엿다。發見者는『뉴ー욕』州의法醫學者『카ー르톤•사이몬』博士와『이시도아•풀트스타인』博士로서 兩人은共同硏究의結果 眼球背後의 網膜에잇는 無數히갈은 血管이지은 無數히다른紋型과 視神經과의 相關關係를發見하엿다。兩博士는 이 結果를 最近『우티카』市에서 開催된『뉴ー욕』州警察署長會議席上에서 發表햇는데 果然 이새로운方法은 各方面으로 異常한 反響을 일으켯는바 兩博士는 다음과갓치 說明하엿다。

『이 方法은 犯罪者가 指紋을 抹殺하는 傾向에 應해서 생긴것이다。다시말하면 化學과 外科手術에依해서 不斷히 犯罪者가 감추려고하는 指紋法을 代用하려고하는것은 아니다。다만 指紋法에 對한 貴重한 補助手段이되리라고 미들따름이다。現代의 進步한 外科醫學으로써한다면 사람은 그容貌를 變하고 或은 指紋을 除去할수가잇는것이다 그러나 網膜用『카메라』를 가지고하면 우리는眼球의 背後에잇는 視神經과 非常히 複雜한 毛細血管의 그리는 紋型이 사람마다 全部다르다── 그리고 그것은 撮影할수잇는것이다。』



人類最大良書는 무엇인가?

【巴里發聯合郵信】佛蘭西의 文藝新聞으로서 著名한『코메듸아』는 近者、佛蘭西에서 錚錚한文士들에게『萬若당신이 難破해서 無人島에漂着해、書冊을꼭한卷밧게保存할수업게되엿다면 당신은엇더한書冊을 남기겟습니가』하는 珍問을發하엿든바 意外에도 大多數의答은『聖書』라고하엿다。그것은 聖書가基督의聖典이래서 그런것만아니라 文學書로서도 千古不磨의 絶大한價値가 잇다는것을 말하는것이라고『코메듸아』紙는 記述하엿는데 個別的으로 二三答例를 紹介하면 다음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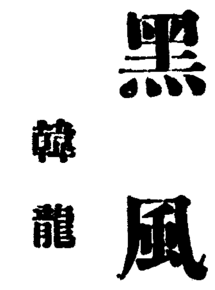
佛蘭西의 詩人協會長『앙드레、듀마』氏……『두말할것업시 聖書입니다』

『죠ー즈、제르망』氏……『聖書 그리고 亦是聖書이다。거긔에는 우리의 欲求하는 모든것이 다잇다』

『장、사르망』氏……『聖書』

戲曲家 앙리、듀베모아氏『佛蘭西辭書』

그러나 佛蘭西學士院會員『앙리、드、레니에』氏는『이런 不幸한 境遇에 이르럿다면 나는冊가튼것을 읽을생각은나지안켓소』



黑風 【159】

韓龍雲 作 金熊超 畵

결혼 2

『선생님 선생님을 뵈옵지못하온지 발서 반년이나 가까이 되얏습니다 빠른것은 세월이오 모진것은 사람이여요 선생님을 가까이 모시고 지날때에는 세월의 오고가는것을 모르고 다만 깃븜에만넘처서 지낫습니다 그때의 생각으로는 만일 선생님을 다만 몃칠이라도 뵈옵지못하게 된다면 견댈수가 업스리라고 생각되얏는데 어언간 선생님을 작별한지가 가을을 지나고 다시 겨울이 깁헛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견대기 어려운것을 견대여가면서 의연히 존재하야 잇습니다 참으로 빠른것은 세월이오 모진것은 사람이여요 선생님이 향항에 도착하시면서 보내신 전보를 밧자옵고 여러날 향해를 염녀하든 적은 마음은 저윽이 위로하얏사오나 곳 광동으로 가신다 하얏사옵기 주소를 알수가 업서서 상서치 못하얏습니다 광동에서 하신 편지는 밧자온지가 십여일이 되얏사오나 지금서야 글월을 올니게 되온즉 태만하다는 꾸지럼은 면할수가 업사오나 저의 사정이 사정이니만치 용서를 빌고자 하는바입니다

『선생님이 떠나신뒤로 어쩐지 저는 모든일에 대하야 아모 욕망이 업시되얏습니다 학교에도 기계적으로 왓다갓다할 뿐이오 조금도 공부를 하야 본적은 업습니다 그리하다가 차차 병이나서 처음에는 여관에서 학교에 오락가락 하면서 알라가 점점 심하게되매 부득이 병원에 입원하얏습니다 그리하야 선생님의 편지를 밧자올때에는 혼수상태에 드러서 정신을 차릴수가 업섯습니다 정신이 나는대로선생님의 편지를 몃번이나 읽어보앗스나 다만 간곡한것을느끼는 이외에 그 사연의 어찌된것은잘 리해할수가 업섯습니다 그리하야 봉투잡어서 편지를쓰기는 도저히 불가능이엇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모든 의약보다 선생님의 편지가 저의병을 물리게 하얏는지요? 깃븐마음으로 선생님의 편지를 보라고 애를쓰는 동안에 차차 정신에 긔장미가 돌면서 수일후에 선생님의 편지의 내용을 리해할만한 정도로 회복이 되얏습니다 그리하다가 십여일을 지난 지금에서야 억지로 붓을 잡어서 글월을 쓰게되얏습니다 글씨를 보시면 병중에 쓴것인줄을 아실뜻하오며 사연도 선후를 일허요

『선생님 저는 실로 약한 인생이여요 선생님이 떠나신뒤로저에게 잇서서는 천지는사막이되고 모든것은 허공이되야서 이 적은 몸을 의지할곳이 업습니다 다만 혼(魂)의 한줄기가 선생님을 따라가서 매여젓습니다 그것이 저로하야금 이세상에 살어잇게하는 생명선이 될뿐입니다

『선생님 저를 약한녀자라고는 하실지언정 어리석다고 웃지는 말어주서요 선생님이 떠나실때에 최후로 하신 말슴 『어느 시간 까지만 기다려달라』시든 그 시간은 과연 어느때여요 그 시간을 기다리므로 만가지의 괴로움중의 한가지의 희망을 삼고 잇습니다 선생님을 작별한뒤의 광음은 어찌그리 빠르고 선생님이 기다리라신 그때는 어찌그리 더듸지오 다가튼 시간이언마는 괴로운 사람에게 대하야 그대지 공변되지 못한것은 못은까닭이지오 그러나 저는 고통을 안은채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잇을뿐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계신 광동은 지금 깁흔겨울이 되야서 일기가 매우 차것지오 선생님 보중하서요 저는 멀리잇서서 적은 정성이나마 선생님을 위하야 축복하여요 정신이 어지럽고 손이 떨리어서 더쓸수가 업습니다 다쓰지못하는 남은 뜻은 선생님의 마음으로 읽어주서요

시카고병원침상에서 종년』

改造社版 ゲーテ全集 新譯決定版

人類最大の文化遺產・權威者による珠玉の名譯

ゲーテは人類の生んだ至大の頭腦至深の心情だ。彼の偉大な過去は複雜な現代にすら連結が多い。彼の大自然の熱愛、眞理への熱求、彼の胸こそ實に人類數千年の希願と貯藏庫だ。世界一と稱せらるる彼の小說、戲曲、詩、自然科學を通して始めて崇高な人生を知ることができ、甘美な面白い世界を知ることができるのだ。彼を知ることは文化人最大の誇であり義務でもある。

內容は世界一 譯者は日本一 解說は懇到 裝幀は優美 紙質は最良 書齋に此上なし

全卅二卷 總內容

第一卷 第二卷 詩集(上下) 片山敏彥 竹山道雄 芳賀檀
第三卷 西東詩集 茅野蕭々
第四卷 第五卷 ファウスト(第一部、第二部) 阿部次郎
第六卷 第七卷 ウイルヘルム・マイスター 徒弟時代(上下) 小宮豐隆
第八卷 第九卷 ウイルヘルム・マイスター 遍歷時代(上下) 阿部次郎
第十卷 親和力 茅野蕭々
第十一卷 第十二卷 青年時代(論文・戲曲・其他)上下 阿部六郎 大山定一 番匠谷英一 實吉捷郎 新關良三
第十三卷 第十四卷 戲曲集(上下) 吹田順助 藤森成吉 實吉捷郎 木下杢太郎 成瀨無極 芳賀檀 佐藤通次
第十五卷 小說集 阿部六郎 山岸光宣 舟木重信
第十六卷 敍事詩集 高橋健二 佐藤通次 舟木重信
第十七卷 第十八卷 伊太利紀行(上下) 相良守峯
第十九卷 紀行 小牧健夫 實吉捷郎 竹山道雄
第二十卷 第二十一卷 第二十二卷 詩と眞實(わが生涯より)上中下 小牧健夫
第二十三卷 年代記 奧津彥重
第二十四卷 論文集(藝術) 谷川徹三
第二十五卷 論文集(哲學) 恒藤恭 三木淸
第二十六卷 第二十七卷 第二十八卷 論文集(自然科學)上中下 菊池榮一 太田正雄 村岡一郎
第二十九卷 第三十卷 第三十一卷 第三十二卷 書簡及日記(一・二・三・四) 木村謹治

第十卷 茅野蕭々譯 親和力 第一回目下配本中

これはゲーテ圓熟期の代表作。戀愛の神秘性を描いてかくの如く微妙の極致に到達したるもの他に類例ありや!?『親和力』なる自然科學上の原則を應用して結婚社會組織その他人爲の障害を超越して兩性牽引の微妙相を曲盡す。茅野氏の苦心良工の比びなき譯筆の冴へを見よ。

全卅二卷 豫約募集 申込金不要
全卅二卷四六判上製。天金布人表紙 昭和十年十月より毎月一回一冊發行。每月拂一冊金一圓八十錢。送料市內六錢地方十四錢。滿鮮十八錢
內容見本進呈

東京市芝區新橋七丁目 振替東京八四〇二番
改造社發行

●徹頭徹尾속까지 はれやか (하레야가)

各地에輸送된銀塊 一億五千萬圓突破

昨年十月以來의統計數字로 運賃額만도五十萬圓

【平壤】 미국(米國)의 은정책강화와 경비때하여 작년십월부터 시작된 신의주(新義州)、평양(平壤)、경성(京城)、대판(大阪)、신호(神戶)、동경(東京)등 각방면에 수송되는은은 최근다소 적어젓다고는하나 여전히 계속되고잇서 매일 이백만(圓)을 돌파하는 상태인바 만일년을 경과한 금번구일까지에 가격은 일억오천만원을 돌파하고 현재에는 입며 은괴수송으로 철도국에 떠러진 수송수수료만도 오십만원을 초과해서 경의선(京義線)은 「절버-닷슈」가 벌어지고잇다 한다

多朱面의主催 蔬菜品評盛況

【宋安】 부천군다주면에서는 지난 이십륙일부터 삼일동안후주 안중립보통학교에서 소채품평회를 열고 일반에게 공개하든동 이십팔일에 부천군수이하 각기인사들의 참집하에 품평회개평의 보고가잇슨다음 입상자에게 상품수여식이 잇슨후 성황리에 종막되엿는데 출품점수는 다주면 삼백팔십륙점을 필두로 부천군각면의 출품들을 합하면실로 오백팔십이점을 산하며 이출품들의 종별과 입상자씨명은 다음과갓다

一、白菜(一一二點) 特賞者 多朱面士忠里 金萬燮
二、大根(一三六點) 特賞者 多朱面長竄里 嚴斗玉
三、蕪(三二點) 吾丁普通學校第三學年生 以下略

伊川郡山間地帶 四萬火田民困境

旱霜、雹災等으로農作物全滅 그들前途가極暗澹

【伊川】 나날이 쪼들려가는 조선사람의 생활상태는 참으로 비참하기 끗이업는바 강원도 이천군은 원래 산간벽지로서 경지면적보다 산림면적이 몇십배나되는터에 군내 웅탄면(熊灘面) 룡포면(龍浦面) 산내면(山內面) 판교면(板橋面)은 그중더욱 심각한곳인바 년년히 산림령의 취체는 심하여가므로 화전민생활에 일대치명상을 당하고잇스며 금년은 우순풍조로 농작물이 평년에비하야 풍작을예상하고 농민들은 적으히 환희를 마지아니든중 서리로 인하야 모밀과 논곡식은 전멸상태에 빠지게 되엿스며 설상가상으로 우박까지 쏘다저 륙할갑수는물론 채소가 전멸상태에잇서서 김장은 할도리가 업게되엿스므로 군내 사만명의 화전민의 곤궁이 크게 문제라고 하는바 군당국에서는 실지조사를하고도 구제책이 막연하야엇지할줄을 모르고 다만 만주로 이민이나 하도록 도당국과 교섭할밧게 타도가업다고한다

鰮粕被害五萬圓 漁船破壞廿五隻

新浦港暴風雨害續報

【新浦】 함남수산업의 심장지인 신포는 이십륙일 폭풍우로 인하야 피해가막대한바 수십개소 공장은바(鰮粕)이 비를마저부패되는것이 약오만원이상이 되며 도룽강에 파괴된 전마선(傳馬船)이 이십오척에 달하는바 인명에는 피해가업다고한다

龍興江流域에 때아닌洪水亂

【咸興】 지난 이십오일 하로동안 쏘다진비는 그어히 때아닌 홍수를이르켜 룡흥강류역전답에 로적하엿든 농작물의 대부분이 류실되여 막대한손해를 보게되엿다는데 피해한농가에서는 배를저어가며 피(稗)베늘근을수중에서 건저내는 정경은 보는자로하여금 무심한하늘을 저주치 안흘수업다고한다

商店訪問 競走大會 統營支局後援

【統營】 통영상공계발전과 친목을 목적하고 조직된 통영일오회(統營一五會)에서는 금번조직된지 일주년의 첫사업의 하나로서오는십일월삼일 오전열시부터 통영의운동장에서 상공계발전과 점원의 하로위안을 목적하고통영상점방문경주대회(統營商店訪問競走大會)를 본보통영지국후원으로 개최하기로된바 통영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주대회인만치 일반시민에게 만흔환영리에 준비는 착착진행중이데 일반상점에서는 다수신입하야주기를 바란다하며 규정은 다음갓다고한다

一、時日 十一月三日正午
一、出發地 ⬛⬛里運動場
一、到着地 海底道路入口
◇賞品 一等 金十圓也 二等 金五圓也 三等 金三圓也 四等 二圓 五等 一圓也

弓術大會盛況 【忠州】

긔보=충주체육회주최와본보충주지국후원의 전조선 궁술대회는 지난이십사오량일간 충주역전광장에서 참가자 백여인으로 성대히개막되여 조선에서 드믄대성황으로 이십오일오후오시에종막되엿다는바 수상자씨명은 다음과갓다

一等 金永元 京城石虎亭
二等 崔錫鳳 京城靑龍亭
二等 鄭常斗 南海淸武亭
三等 金允善 京城石虎亭
同 朴禧達 同 石虎亭
同 權重泓 醴泉武學亭
四等四人五等五人六等六人

馬山讀書會事件

檢擧近一年만에豫審終結되여 釜山法院合議部公判에

【馬山】 마산과 함안을 중심으로 이러난 적색독서회 사건은 세인의 이목을 놀래게 할만치 검거가 확대되여 경찰에 구금되지 삼개월만에 경수부자라고 인정한 좌긔 다섯명을 예심에 붓치 우금구개월간을두고 마산지청에서 엄중취조한결과 유죄로결정되여 엄마전 부산지방법원합의부공판에 회부하엿다는데 공판일자는 미정이나 부산형무소로 이송하리라한다

黃英煥 黃甲來 李文興 李元

本報浦項支局主催 寶鏡寺丹楓노리

來十一月三日을卜하야

【浦項】 명랑한 가을날씨 산뜻부는 서풍바람에 따라 넘실거리는 황금의 파도가 구비치고 산에는 단풍이 물들어 일반호외 산책자의 눈을 끄을게하는 이때에 본보 포항지국에서는 일반 독자의 위안과 아울러 시민의친목을 도모하기위하야 오는 십일월 삼일에 경북 팔경의하나인 송라보경사(松羅寶鏡寺)에서 좌긔규정에의하야 단풍노리를 하기로한바 호외산책에 절호한이날 다수참가를바란다고한다

一、時日 十一月三日(月曜日)
一、申請期日 十一月二日까지
一、會費 一人當一圓 (自動車賃午料其他)
一、餘興으로寶物찾기等等

泗川서開催된 白日場、弓術會

大盛況裡終了

【泗川】 경남 사천군 관덕정(觀德亭)주최와 본보 사천지국후원의 전조선 남녀궁술대회와 사천군향교 중수락성식 그밧게사업인 백일장(白日場)등은 예정과 가티 지난 이십일일 오전구시부터 사천향교정에서 개최되엿는데 멀리 전라도 경북도등 각지에서 운집한 선수가 사오백명에 달하엿는데 백일장과 궁술대회 동참자들의 주소씨명은 다음과가다한다

◇白日場部

▲賦部―一等金學烈(泗川邑) 二等陳榮夏(同上) 三等李炳祚外十四名
▲詩部―一等許元會(泗川相洞面) 二等白晳鉉(同上) 三等張弘根(南海)外二十二名
▲大古風部―一等宋三用(泗川龍見面) 二等鄭銑植(三千浦) 三等裵章詠(南海)外十四名
▲律部―一等李淳富 二等申蓮玉(泗川面) 三等金丁求(泗川)外二十名

◇弓術大會部

▲男射部―一等金敬富(固城) 二等鄭泰谷(麗水) 黃珍秀(咸安) 三等 李命鎬(泗川) 金達五(泗川) 崔榮燮(昆陽) 朴泰圭(泗川) 四等 崔林谷(昆陽) 趙文煥(咸安) 姜基宇(統營) 五等 梁基守(統營) 千亨源(泗川) 全成龍(淳昌) 趙在晋(咸安) 崔衛烈(統營) 六等徐萬友(晋州)外五名
▲女射部―一等 鄭㐲粲(固城) 朴順玉(晋州) 具桂月(固城) 三等 鄭㐲姬(晋州) 金三壽(晋州) 朴桂玉(泗川)

執達吏不正競賣 事件漸次擴大?

又復五名을檢擧嚴調

【金海】 긔보=김해집달이원의부정사실로 집달이 정희춘(鄭熙春)과종우원박상서(朴相興)등을 구인하여 엄중취조한결과 집달이 사무소에서는 차압품、경매시에는 일정한광고를 써서붓치기는 고사하고 다른사람이 몰으도록 일부러감추어가며 집달이원은 경매당시에 자긔부하를 다리고단이면서 자긔마음대로헐가에 경매하여 물상한 농민의 피땀을 착취하엿스며 다시그헐하게산물건은 매도처분하야 리익은 집달이와 경매물건사려단이는 사람들이 배당하여 먹은것이 판명되자 지난이십오일에는집달이 부하일당오명을 또다시 구류시키고 엄중한취조를 거듭하는바 문제는 매우확대될듯하다 한다

全定州少年 運動大會盛況

【郭山】 지난이십칠일 평북곽산에서는 조선소년군곽산분대(朝鮮少年軍郭山分隊)주최로 전정주소년운동대회를 개최하엿는데 각처에서 모여든 소년단체로대성황리에 예정의경기를 맛치엇는데 우승은 정주소년단체에서 획득하엿다한다

本社分局後援 編物講習會

【雄基】 방예도 웅긔공장거시내 본인상회「[illegible]」에서는 본보분국후원하에 [illegible] 강습회를 개최하게되엿다한다

一、時日 自十一月一日至十日
一、場所 [illegible]
一、會費 一人金三十錢
一、講師 孔命吉氏

六十넘은老婆 猜情으로殺人

【金海】 경남김해군가락면 식만리 김종귀(金鍾貴)의 처김봉이(金奉伊)(六〇)는 동리 서복이(石福伊)(六〇)와 김종귀와 남모르는 관계가 잇다하야 지난 이십사일밤에 질투를 차저가 자긔남편과 관계가 잇다하고 투차욕설하엿든바 질투이는 분함을 참지못하야 먹을외에 이와가튼 투명을 당한 살을쥐고 자곤을 밤새도록 하다가 이십오일 오전려시경에 김봉이는 그만긔절하야 죽엇는데 이급보를바든 김해경찰서에서는 전긔 김모녀를 류치하는일방、공의(公醫)를 다리고 현장에 출장하야 사체를 해부한결과 타박상은아니나 로비협으로 죽은것이 판명되엿다한다

年七十의兩老人 눈물의犯罪動機

【平壤】 고희의 경계선을 넘은 자유로동자의 눈물겨운범죄사실―이십오일 오전네시경 부내 행정(幸町)평양키네마뒤에 침입하여 남은 아연판(亞鉛板)을 절취하여내이든 부내서성리(西城里)리일표(李日表)(七〇)와리태두(李泰斗)(七〇)의 두로인은평양서에서 취조를 밧고잇는데두로인은 지게를 지고 아모리시가를 헤매여도 단돈십전을 벌수가업고 치위오는 이때에가족들이 자긔들을 기다리고 잇슬것을 생각할때에 아지못하는사이에 범죄를하게된 눈물의하소연을하엿고 우리는 류치장에서 조반명어리라도 먹으면 그만이나 가족들은 누가 먹여주겟느냐는 이야기를 도를때에는경관의눈에도 동정의눈물이 잇섯다한다

體育會創立記念으로 商工大運動會

來月十七日釜山에서

【釜山】 지난 이십일에 창립한 부산체육회(釜山體育會)에서는창립긔념사업으로 오는 십일월십칠일에 부내대신정 공설운동장에서 상공대운동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방금 그준비에 분망중이라는데 상세한 규정 기타는 추후발표한다하며 중앙、동아、조선 삼지국이 후원을한다는데 부산서는 금번에 처음인 상공운동인마큼 대성황을 예긔한다하며 일반상공업자급 종업원들의 만흔 참가가 잇기를 바란다고한다

咸高生徒事件被告 金湘勳檢事控訴

其外執猶五名釋放

【咸興】 지난 이십륙일 함흥지방법원에서 판결을바든 함흥고보생도(咸高生徒)사건피고중 집행유예(執行猶豫)로바든 륙명중 김상훈(金湘勳)만 이십팔일 장정검사(長井檢事)가부대공소를 신립하엿고 긔외의 오명은 모다 이십팔일오후에무사히방면되엿다한다

會寧天主教會 盛大한獻堂式

【會寧】 회녕군 회녕읍에 잇는 원산교구(元山敎區)회녕천주교에서는 십월이십칠일 오전열시부터 천주교덕원교구(天主敎德源敎區) 헌당식(獻堂式)을 동교당내에서 신부김대진(金大震)진도광(陳道光)외 원산교구주(元山敎區敎主)이하신도 다수참집하에 성대히 거행하고 오후네시부터는 관민다수를 초대하여 성대한 피로연을 거행하엿다 동교회당은 소화팔년봄부터 공비륙만오천원으로 총면적천평의 려와제건물로 긔공하야 삼개년만에 준공되엿다고한다

地方人事

▲[illegible] 來訪

異次頓의死 【27】

李光洙 作 金奎澤 畫

선마로는 잠깐 고개를 들어 옥좌에 안즈신 상감을 우러러 보며、

「상감마마께오서는 항상 창생을 불상히 여기시오니 저 이차돈과 달님이 비록 만번 죽어 아깝지아니한 죄를 지엇더라도 필시 용서하심이 올흘듯 아옵니다。이차돈의 소원이 비록 괘씸하오나 그아비는 나라를 위하야 전장에서 죽엇사옵고 그 한아비 한마로 또한 도화의 늙은 나라에 공이크오며、달님으로 말슴하오면 제 감히 공주마마와 겨루엇스니 만번 죽어 마땅하오나 그 아비 이마로의 공을 보시와 두 사람의 목숨을 살리시옵고、그러하오되 저희 둘이 지아비와 지어미 되어 살게할수는 업사오즉 이차돈은 고구려로 보내어 삼년 말미를 주시되 삼년안에 무슨 공을 세워 고구려임금의 목을 버이든지 고구려의 한 고을을 떼어 신라에 붓티거든 죄를 사하시와 신라에 돌아오기를 허하시옵고、달님으로 말슴하오면 일생에 아모데도 시집을 가지못하고 혼자 늙게하시오면 상감마마 성덕도 상하심이 업고 또 나라법의 위엄도 세울줄로 어리석은 이몸이 생각하오니 어떠하올지、이만 아뢰오」

하고 머리를 조아렷다。

임금은 선마로의 말에 살아날듯함을 느꼇다。그래서 용안에 웃음을 띄시고、

「과연 아오의 말이 옳다。과연 지당한 말이다。이차돈아 네 듯거라。너를 죽일것이나 선마로이손의 청함을 들어 네 목숨을 살려주니 네 오늘로 이 나라를 떠나 고구려로 가되 삼년 말미를 주니 삼년안에 큰 공을 일우거든 죄를 사하야 나라에 돌아오기를 허할터이니 그리알아라」

하시고 좌우를 돌아보시엇다。

좌우도 다 살아날수없음을 느껴서 긴 한숨을 쉬며 선마로의 지혜에 탄복하엿다。

이차돈과 한마로는、

「성은이 망극하오」

하고 무수히 머리를 조아렷다。

임금은 만족한드시 또 입을 열어、

「달님아 네 듯거라、네 죄만번 죽어 마땅하거니와 네 아비 이마로는 나라의 기둥이라 하면 터해이 전장에서 세엇고 남으로 금관국과동으로 우산국을 처 이기어 우리 나라의 위엄을 떨첫스니 그 큰 공을보아 네 목숨을 살리니 네 일생에 지아비를 어들 생각 말고 혼자 늙으라」

하시고는 또 좌우를 돌아보시엇다。

달님과 이마로는、

「황공하오、한울가티 놉흐시고 바다 가티 깁흐신 성은을 무엇으로 만입이나 갑사오리까」

하고 수어지 머리를 조아렷다。

상감은 옥좌 알해 업더린선마로를 굽어보시며、

「아옹 일어나라、오늘 네가나라에 바친 충성이중 남이업스리라」

하고 칭찬하시고 삼감으로 금한장을 하사하신다는 분부를 하시엇다。

이차돈과 달님은 곳 결박지운 오라를 그름을 바닷다。자유의 몸이된 이차돈과 달님은 다시 옥좌를 향하고 엎더려수업시 머리를 조아리고 각기아버지와 한아버지를 따러서 대궐에서 물러나왓다。

이차돈은 한번만이라도 달님을 터 바라보려하엿스나 달님은 벌서 가마속에 숨어지고 말앗다。이차돈은 달님이 탄가마가 흔들흔들 흔들리는양이안보일때까지 보고십헛스나 한아버지의 재촉으로 수레에 올라 집으로 돌아왓다。

이차돈은 한아버지를 사랑까지 모서다들이고 어머니를 뵈오러 안으로 들어오려하엿스나、

「게 좀 잇거라」

하는 한아버지의 명령에 한아버지압헤꿀어안젓다。

한마로는 한참이나 말이 업섯다。아모리 희로애락을 낫빗에는 나타내지아니하는 수양을 가진 한마로도 오직 하나밧게 업는 혈육인 손자이차돈을 원수의 나라 고구려로、오늘 안으로 떠내보내다는것은 견되기 어려운 슬픔이엇다。

「이놈아!」

하고 한마로는 우렁찬 소리로 손자를 불럿다。그러나 그 뒤 말은 목이 메어서 나오지를아니하엿다。

〃鎭南浦米取引所〃 왜 廢鎖케되는가

鎭南浦米穀取引所는 昭和七年一月二日開所以來 同八年下半期부터 業績이 不振하야 同九年度부터는 實로 瀕死狀態에 이르게되고 말어서 數次更生策을 講하엿스나 아모效果도 업시 今日에 와서 解散의悲運에 處하야 約一個月前부터 取引을 中止하고잇다 現資本主義的 經濟機構에잇서서 淸算取引所는 存在性을 띄인機關인것은 事實이다 그럼으로 設港인 鎭南浦로서는 取引所가 업서지느냐 다시 更生의途가 잇게될가 함을 重視치안흘수업고 同時에 그取引所의存廢問題는 各方面에적지안흔影響이 밋치는結果를보게될것이다

× 昭和六年 朝鮮에 取引所令이 發表되면서 木浦, 群山等地에도 鎭南浦와 同時에 米穀取引所가 設置되엿다 그런데 오늘에잇서서 오즉 鎭南浦取引所만이 이런 悲運에 빠지게되엿는가함이 疑心을 갓게하는 點이다 생각컨대 그가운대는 반드시 어떠한 큰原因이 潛在하여잇다고 본다 이제 그原因에 對하야는 여러가지로 論議되고잇다 그러나 이곳에서 두어가지 큰原因을 發見할수가 잇다 하나는 創立當時 會員組織制로되야 十五、六名의 會員으로組織되엿다 그런데 取引所方面에는 아모 經驗도 업고 會員으로 되야 開店만 하면 利를 보게될것이라는 盲目的 會員이 거의그太半이엇기때문으로 事業的으로한 經驗者는 업고 全部 利益으로 開店하고 얼마동안을 지내보앗스나 처음 企待와는 反對로 一攫千金의 큰 利益이 업슨것이다 이러는동안 米穀統制法이 實施됨을 따러서 米價가 騰落의 幅이 縮少케됨을 보고 將來 危險性이 잇슬것으로 생각하야 會員들은 거의 脫退하여버리고 오직 重要幹部三人이 取引關係로 看板만 걸고 잇게 되엿다, 이것으로 본다면 當初組織에 不完全하엿든것이 오늘의悲運에 임호게한 큰原因의하나라고 말할수가잇다

× 둘재로는 設港鎭南浦에 米穀取引所의 一個所를 維持치못함은 鎭南浦一般經濟界에莫大한影響이 밋치는 同時에五萬府民의 體面을 汚損하는것이라고 해서 今春以來 그更生策을講究하엿든 鎭南浦米穀界의有力者인 新井新藏氏를 會員으로加入케하야 經營의關係까지 맛기게되엿다 그래서 取引所理事長이며 會員의 一人인 鈴木重一氏와 新井氏가 記者團의 斡旋으로 會合하야 經營의更生策을 協議한바도잇섯는데 鈴木氏와 新井氏間에는 數年以來 [illegible] 惡感이 잇섯든 關係로 協議는 中止되고 말엇다 그뒤 記者團에서는 雙方의意見을 一致식히고 取引所의更生策이 圓滿히 進行되도록 百方으로 努力하엿스나 아모 效果도업시 決裂되고말엇다 그리하야 記者團에서는 結局 兩人의私感으로 因하야 米穀取引所가 最終의悲運을 가지게되엿다는것도 重大問題이어 더구나 鈴木氏는 現鎭南浦商工會議所會頭요 또는 取引所의 理事長이다 그리고 新井氏도 鎭南浦穀物組合長을 비롯하야 各方面으로 有力한人物인데 이런人物이 鎭南浦全體에 對한 面도 돌보지안코 個人의私感으로 [illegible] 내인다는것은 取引所問題뿐아니라 將來 各方面에 여러影響이 밋출는지 알수업다 그래서 記者團에서는 極度로 憤慨하야 그對策을 講究한結果 다음과갓흔 決議를 하엿다

× 鎭南浦米穀取引所는 昭和八年度下半期부터 會員이 漸減하고 取引의 萎縮가 顯著하야 今春以來 全然 假死狀態를 持續하여왓다 其間 官民有志及記者團의 更生運動도 效果가 업시 畢竟閉鎖의運命에 逢着하야 方今 當局에서는 認可取消까지 擴張되여 잇다고 한다 이와가튼것은 取引所뿐아니라 全鎭南浦將來發展에 對하야 重大한影響이 밋칠것임으로 府勢進展上 매우遺憾되는바이다 [illegible]

(鎭南浦支局 安商燁)

米穀統制法 買換規定改正 廿八日顧問會議에서

【東京電話聯合】米穀顧問會議는 二十八日午後二時부터 農相官邸에서열고 農林省으로부터 山崎農相長澤次官荷見米穀局長以下 關係官顧問側에서 上山氏外顧問이出席하고먼저 山崎農相으로부터 人事가잇슨뒤 荷見局長으로부터 最近의米穀事情에對하야 報告가잇슨뒤 米穀統制法運用의重要事情으로 農林當局에서

一、米穀統制法施行令四條에依하야 때를달리하여가지고買換에依한 賣却을 할境遇出廻期의米價가 最高價格을너머슬念慮가 잇슬때는 買入치안는다는것은 米穀統制法의 精神으로보아도當然한바 이것은 規定을設置함이 適當치안흘가 하다는 意見이잇고 이에對하야 各顧問은 適當한規定을設置하여 賛意를 表하고 이規定化에對하야 農林當局에서 考慮硏究키로 되엇다 問題의 買換에關한 規定은 統制法第五條及施行令第十四條에依하야 아마 十一月初旬施行令의 改正으로 될것이다 다음에 荷見局長으로부터 十一月六日午後十時부터 首相官邸에서 米穀對策調查會를열터인데 來議會에 提出할 米穀自治管理法案은 大體前議會의修正案趣旨를 加味한것을 提出하리라는것이라고報告하고 各顧問도이것을 承認하야 午後四時半散會하엿다

米穀自治管理案에 朝鮮은利害關係複雜

◇……日本商議의照會에對한 朝鮮商議態度重視

米穀自治管理案은 農林省에서議會에 提出키로 決定하고 中央의情勢로 보면 議會通過는 必至의 形勢에잇다 그內容도 大體前議會에 提出하야 流産한米穀自治管理案과 大略同樣의것으로 解釋되는바 이에對한 朝鮮側의 對策에對하야는 曩者 鎭南浦의 朝鮮穀物協會聯合會에서審議한結果 다시 硏究하고 當分 靜觀의 方針을 決定한대로 民間側에서는 아즉 이에 對한何等의 意思表示도 업는 狀態이다 그런대 日本內地에 잇서는 벌서부터 各種團體에서 이對策硏究를 하고잇스며 日本商工會議所는 米穀商의 商權擁護立場에서 米穀對策委員會를 設置하고 그具體的對策을 講究하는터이다 外地側에對하야도 지난七月 朝鮮商工會議所에 다음과가튼 事項을照會하야 매우熱心한 態度를 보엿다

一、現行米穀統制法에 依한 米穀對策에 對하야 缺陷이라고 認할事項

二、前項의 缺陷을 是正補完할 米穀根本對策에 關한意見

三、曩者 議會에 提出하고 審議未了가된 米穀自治 管理案에 對하야 缺陷이라고 認할事項

四、前項缺陷을 是正할 對案其他 이에關한意見

이와가티 朝鮮商議로서도 이에對한 意思表示를 할立場에 잇서 審議한 結果 大體 答申案을 決定하고 不遠 日本商議에 回答키로 된바 米穀自治管理案에 對하야는 朝鮮에서도生産者對米穀業者 或은 農村商工業者等의 複雜한 立場이 錯綜되어잇고 또 總督府의 意向도 輕視할수업다 그럼으로 朝鮮商議로서는 매우 困難한 立場에잇는만큼 同案에對한 意見如何는 매우注目을 끄은다고한다

農林局首腦部急遽協議

目下米穀事情으로보아서 今後形勢를樂觀

米穀管理案을 附議할 米穀對策調査會는 來十一月六日 東京에서 열기로되야 待機中의 朝鮮側에서는 總督府矢島農林局長이來十一月二日 石塚技師를 帶同하고 渡東할터이라고한다 渡東을압두고 農林局에서는 農林局長室에서 矢島農林局長을 비롯하야 山澤農産課長 石塚技師等이會同하야 그의善後對策을 熟議하엿는데 그內容은 아직明言하지안컷스나 總督府의 根本方針으로는 어데까지든지 差別待遇를 撤廢할決定이라고한다 이에對하야 石塚技師는 如左히말한다

아즉 會議에 臨하기前 即農林省의 新米穀自治管理案의內容을檢討하기前에는 무어라고 말하기어렵다 그러나 今年과 가티 日本內地의 米穀事情이 特殊하게 달러진 今日에잇서 朝鮮米에對한 差別待遇는 잇슬수업는일이라고 推測된다。今日과가티 米需給狀態가 圓滑치못한때임으로 지난번 米穀統制法의 一部條文을 改訂하자는 論議도 濃厚하엿든것과 가튼 米價高에잇서서 日本內地로서는 朝鮮米의 多量移入을 必要로하는것이만큼 朝鮮米를 差別하는等의 일은업슬리라고 생각된다

農林局長渡東

來月二日石塚技師와

米穀自治管理案은 來議會에再提出키로 決定하고 十一月四日乃至六日頃 米穀對策調査會가열리게 되엿슴으로 朝鮮總督府에서는 矢島農林局長과 石塚技師가 出席키로 決定하고 十一月二日 出發渡東할 豫定이라고한다

朝鮮米積載에 盟外船이出現

朝鮮米出盛期를 압두고 傭船統[illegible]의 見地로 配給統制를 云謂하는때에 北洋材의 積載를 갓내인 同方面의 船舶이 朝鮮米積載에 風來하는 兆候가잇서 衝[illegible]

製糸認可方針

◇……人物資力本位

朝鮮製絲業令은 드듸어 十一月一日부터 施行하기로 되엇는데 同業令中 이미 認可를 어더操業中인 工場法人經營工場으로在來의 自然消滅되게되어잇서서 營業權讓渡等의 境遇의 同業令運用問題에 關하야 朝鮮製絲協會에서 二十五日 大邱의 總會에서臨席中인 田中總督府技師와 意見交換을 하얏는데 이結果 總督府의 態度는 結局 製絲業에 經驗이잇고 資金이 豊富하며相當한 人格者임을 第一條件으로하야 京城의 岩村製絲와 如히 經營技術은 업스나 資力이 豊富하고 人格者인者로부터申請이 잇는 境遇에는이를 認可하기로 되어 申請者에 何等經驗이업슬지라도 經營認可를하는同時에 法人解散等의 境遇에는 그때마다 內情調査를한후 適宜히 後任者의 經營을認可함이 明瞭하게되엿다

東海岸豐漁?

氣温과潮流로

東海岸의 明太出漁는 鰮漁의空前大豐漁의 뒤를이어 漸次로 本格的 漁獵期에 드러갓는데 咸南 江原의 底曳網四十五艘中에서 四十艘이 出漁를 開始하고 잇스며 咸北의 底曳網五十艘도 近近 出漁를 開始하리라는바 現在의 氣温潮流及 水温狀態는 順[illegible]

滿洲 通貨統制와 朝銀券撤收

三年後에야可能?

滿洲國中央銀行券의 國幣統一에 依한 朝銀券의 撤收는 日滿政府首腦部間에 時期의 問題로 方針을 決定한 模樣으로 早晩實現될 運命에잇는바 大體 實現에 이르기까지에는 적어도 三年의 時日을 要하리라고보는터다 그리고 이境遇 가장問題되는것은 一、朝銀의 滿洲에서의 發券特權에 對한 報償如何

二、朝銀券의 撤收 國幣統一에 依하야 對外決濟가 자못 困難을 伴할러인데 이對策如何等의 諸點으로 二의問題와 如한 이를逆으로 議論하면 朝銀의 强點이다 따라 이問題가 實現하야도 將來는 如何間 朝銀의 現實的利害關係는 외히려 損失이 되지안는다 다음에 將來問題가 되는것은 國幣統一時에 對한 [illegible]

三、滿洲國에서의 朝銀券 發行關係로 指定되는 境遇는 朝銀券은 그만치 發行되게되여 朝銀의 이 意味에잇서서 의打擊은 적다

四、朝銀券의 準備를 그대로朝銀에預金하는境遇는 發行高는 그만치 減少한다

朝銀券漸次膨脹

一億七千萬圓突破

比前年二千七百萬圓增發

朝鮮銀行券發行高는 十月이되면서 漸增하는데 二十八日에는繼越되것은 一億七千萬圓臺로 突破하야 一億七千百五十七萬圓으로 膨脹하엿는바 昨年十月二十六日發行高 一億四千三百九十一萬圓에 比하면 二千七百六十六萬圓의 增發으로서 이는 米穀資金의 本格出廻와 景氣好轉等에 依한것이라고 보는모양이다

前週手形交換增加

京城手形交換所發表 廿一日부터 一週間의 手形交換高는 二萬七千百四十枚、一千七百七十七萬二百六十五圓餘으로 前週보다 九百十枚, 二百七十四萬二千餘圓의 增加이엿다

[illegible] 卽 最近淸津丸(二四〇〇噸船主不明)이 仁川으로부터 阪神向朝鮮米一萬石을 百五十圓으로 積載契約을한 形跡이잇다 今後에는 現在協定의 船를 다서盟外船의 就航이 잇슬모양이라고한다

水組聯合協議會

廿六日에開催

東生水組의 組合費徵收賦課에關한水組聯合協議會는 二十六日第三會議室에서 協議가 끗나고 今年度正租價査定의基本과 徵收標準을 決定하고 二十八日農林局長의決裁를엇기로된바 問題의基準正租價格은 仁川을 中心으로 하고 正租價七錢五厘乃至八錢으로하엿스며 各水組 所在地에 따러서 較差를 붓첫다 水組側에서는 相當히 利己的 主張이 잇섯스나 總督府에서는 斷乎히 今年과가서 好調의때에도 備荒的見地上 積立의 擴充을 하고 相當히判斷을 내인 査定을 한것이라고한다

米日爲替少弱

【京城二十八日發聯合】二十八日의 米日爲替는 休日前日에比較하면 賣二十八弗七十三仙으로二仙低 買二十八弗七十一仙으로一仙低

經濟界消息

○殖銀大阪出張所支店昇格申請=殖産銀行에서는 大阪出張所를 支店으로 昇格하고 目下 大藏省에 一般業務를 取扱하라고 그것을 認可申請中이라고

○新義州第二產業組合은 지난二十五日 新義州國境勞働組合內로 移轉

大爆發在近說

買根據는豐富

인플레第三年으로 一般的으로購買力이增進하고 事業會社의積極方針과 米高, 繭高로通貨膨脹時代에入하야 最近의兌換券增發의特別한意味가잇슬뿐아니라 低金利는世界的이며特히軍備에在力하는이때金利가引締될理萬無하다。米國의 景氣는 繼續하야 良好하야 生絲消費 三割增을 비롯하야 年毛七割激增이라하며 北中問題와 中國의인푸레轉向이注目되는터로 日本의重大한 好影響을齎來할것이즉 큰市勢가 到來하리라는 議論이 優勢해가며 爆發在近說까지생기는모양이다

山一證券買思惑

全國資本家의 信賴를 밧고잇는 一山證券會社가 鐘新과東新에對하야 大規模로 買思惑을하야 크게注目되는터인데 그根據가어대 잇는지? 周圍의 如何를 不拘감의高下를 不問코買하는것이라꼼 더욱이 一般의注意를 하게되는 터로서 朝氣的見解로서는 거의無謀한것이라고도 할만하나 山一證券의 買思惑은 決코輕視할것이못되여 그推移가 重視된다한다。

買思惑의正體가 누구인지는 아즉 判明되지안흐나 或은 山一證券自店의 思惑이라할말도잇스니 即山一은 背景에廣大한 顧客을가지고 販賣網을 가지고잇슴으로 이것을 利用하야 正株를 漸次이方面에 向케하야될것만큼 사주는方針의 買思惑이라말도잇는바 如斯히 長短兩市場을利用하야 新形式의 買思惑은 新機軸이라고도 할수잇다한다。

拓新高價警戒

拓新은 八月以來 猛烈히 買進되어 東京市場에서 取讀高가三期를合하야 二萬六千餘株로 激增되엇스니 玉整理難을 警戒할때임것갓다。그러나 下期에는 三分程度의 配當復活이 豫想되며 漸次增配도 期待되니 큰反落이 업슬것이오 大勢로는 惡目買가 依好이라라고말이잇다

實物前場取引

實買高二四〇枚

▲大同産業 三〇▲宇治電 [illegible]▲大同電力 [illegible]▲大同電力(新)二二〇▲朝日麥酒 [illegible]▲人造肥料(新)[illegible]▲川崎造船 [illegible]▲川崎汽船 [illegible]▲東洋拓殖 [illegible]▲日産(新)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聯合】金融의緩漫 [illegible]

商況(廿九日)

株式 反弛 反賣物로

前場强調

前場은 日米景氣先續一寄機後閑散이다가 新東도 반進하야 東新四十錢高인 百六十四圓二十錢、日産八十圓七十錢, 大新九十八圓丁 朝新三十二圓八十錢 日魯五十八圓十錢, 拓新十八圓丁에 各大引

[illegible table: ▲東新 ...]

後場反落

後場은 大阪當限平穩納會 好感으로 東新 百六十四圓八十錢에 高寄 이엇스나 東京引低로 反落하야 結局前引에比하야 東新 一圓三十錢 低인二圓九十錢 大新五十錢低인 九十七圓五十錢 日産八十圓六十錢에 各大引되고 朝新 三十二圓九十錢, 鐘新百四十一圓八十錢拓新十八圓丁이 인끗일引

期米 利喰物로 少戾

前場續落

前場은 昨後場은 阪地三十圓十錢 止와 共히 二十七圓八十一錢에 出來 止한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 二十九圓 九十七錢인 十三丁反落을 繼하고 二十七圓七十一錢인 十丁低로 續落한後 阪地四節九十錢으로 五錢까지 小戾하엿다가 九十三錢에 止寄를伴하야七十五錢으로 反히十錢까지 低押하더니 結局 七十五錢으로 反高止寄하엿다。

後場引返

後場은 二十七圓七十六錢에 一丁高로 始寄後 漸高하야 五節八十八錢에 올르고 別關가리 止寄하다

三期共히同鞘

當限反落으로

新甫十二限이 發會되든當時에는 當先의開鞘는 約百丁 中先의開鞘는 無異同鞘이엇섯다。其時當限은 在米稀薄의云云으로 渡米의蒐集이 容易치못할것이라하야買方은 絶對線을延長하야왓스나 馬越系와 山種一派의 對時로 大受渡를 豫想하든當局當限戰은 其間 山種軟將의 猛烈한活動으로 所要의渡米가 完備되고 當地는 過去 九限에受米한豐國製粉의 所有古米가 反히渡米化한關係로 또한 無難히 調達된모양이다。이와가티 整備되여거니와 整備된 實米가大部分 古米임으로서 買方으로서는 受米를 忌避하지안흘수 업는 立場에잇다 그럼으로 買方은 受渡를 活氣를쯤이지못하고 買方은 乘勝長驅의 威力을 加[illegible]

當限의割低는 古米의相場?

當地當限은 今朝二十七圓七十一錢까지 反落하엿다 此를 丸仁三等二十八圓六十錢에 比하면 正米보다 九十丁의割低를 示함으로 採算上 오히려 買進할餘地가잇다。그러나 今回의渡米는 新米出廻의 遲延으로 賣方으로서의 整備한 왕이 全혀 古米로서 買方은 될수잇는대로 그受米를 忌避하리라는 此際인만큼 當限은 步一步의 低落으로 그實로 當限의 現市勢는 新米에 比하야는 九十丁의割低이오 古米에 比하야는 約六十丁의 高位를 維持하나 그러나 大體採算으로보아서는 新古共히 適合하지안흠으로 强弱에對한 判斷을하기에 躊躇치안흘수 업다 그러나 明前場으로서 終始를 告하게되는마큼 市勢를 左右하게 되는 關係로서 全혀 仕手의關係로 되는모양인데 今朝의瓦落은 小口買方의 投退로 由한임으로 此等의 投物이 一巡한後에는 昻騰을告할지도 亦未知일것이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市場六感

株 今前場東新은 百六十四圓九十錢, 日産은 五十八圓十錢으로 奔進▲東新은 整理未了로보아작구 軟振가 賣込하야 高價를 抑壓하나 市勢自體는 自못强合 ▲九月에沸騰한觀來今日까지 一個月餘에 取組高漸增、戰爭人氣解消等으로 大盤理가 豫想되엇음에 不拘코▲結局高價保合에不過하고 大勝落이엇다 ▲이것이如何까닭이냐? 國內的 農村景氣, 米國財界好轉, 世界的軍擴、物價高貿易好轉等에 依한것 ▲如斯한諸點으로 大衆의 安心買를 [illegible]

米 今朝 當地當限은 二十七圓七十一錢까지 反落하엿다。丸仁三等에比하면 九十丁이나 割低▲此는 小口買方의 投退關係도 업지안커니와 大體 今回의渡米가 大部分古米인만큼 古米相場化하는光景▲何如間 當限戰에 잇서서는 一時 必勝을自誇하든 買方으로서 돌이혀 悲境에陷하는모양▲受米를 한다하더라도 쌀이 쌀인[illegible]

氣가 撥留될順序로되어가는모양인즉 目前이나 前途에大惡材料를發見할수업는限 熱狂的買付가잇기까지는 決코賣를생각할수업다는大勢論이有力 果如何?

만큼 今後의 處分이 難問▲그런데 此等의古米가 精米用에 供하게되는 때는 新米에 混入할수잇다고도 한다。그러나 그價格에잇서서는 훨신 低廉할것을 可知▲今朝 丸仁三等은 又復 二十八圓六十錢의反落을告示▲此는 淸算市場의 低落에 伴하엿다는것보다 新米出廻의 威壓을 受한關係인듯▲果然 時日은 갈사록 出盛期에入하게되니 來月부터는 米加壓迫의市勢가 展開될것을 또한 可期▲來月初에 發展될 第二回米作豫想이 果然 어떠한 數字를 示할지 此에依하야 一波瀾을 惹起?

各地正米

京城軟弱

淸算低와 定期新米의準備一巡으로 買氣가減退되고 氣配二十錢低의 軟調를告하야 丸仁三等二十八圓六十錢 四等二十八圓三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丁

仁川不振

原料正租의出盛傾向으로意外賣物이 적으나定期의 逐日軟化商狀과 賣行不立으로一般이買需稀薄하야 市況不振하야 氣配二十錢下落인丸仁三等二十八圓六十錢 四等二十八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六十二錢

釜山氣崩

市場은 業外米의 處分物 新規賣等으로 二、五〇〇叺의 出廻가잇섯스나 期米의[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昨米沒落直會와 結果 買營的 買上中止形勢로 마바라의 賣氣를 呼하야 下放이 잇스나 低價에는 買氣潛在이다 ▲賣方 中東側, 東京側, 小口側投 ▲買方 地場側 [illegible]

大邱下放

淸算低와 淸算의 買氣가 [illegible] 朝鮮市況 日本內地의 [illegible] 狀態로 前日보다 三十錢下放인 角ヶ三等二十八圓八十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一圓二十錢

群山續落

米穀市況은 淸算不振으로 全혀 活氣가 업고 日本內地注文이 中絶되어 月末準備一巡모양으로 氣配十錢低의 不動인 丸ヶ四等二十十五錢

木浦下押

需要地의 買氣不振으로 產地가 繼續하야 低迷狀態인데다가 定期의 軟調를 보고 二十錢低唱인 丸木三等二十九圓二十錢 四等二十九圓丁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十錢 四等二十八圓九十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錢

今日財界(廿九日)

◆米 (京城取引所)

仁川期米 [illegible] / 大阪期米 [illegible] / 正租(仁川) [illegible] / 一斤 [illegible]

◆市中金融 [illegible]

◆株

大阪綿絲 / 大阪人絹 / 大阪砂糖 / 東京 / 日産 / 京新 / 大新 / 東新 [illegible]

金融

◆海外爲替◆ 廿九日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貨入債◆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米穀 廿九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棉糸布 廿九日

◆京城綿糸布市況◆ [illegible]

◆京城棉花◆ [illegible]

◆三品定期◆ [illegible]

◆日本麥粉◆ [illegible]

◆各地沖價◆ [illegible]

肥料

◆滿洲大豆◆ [illegible]

◆北海道人一石◆ [illegible]

◆大連特產市況◆ [illegible]

◆豆粕沖價◆ [illegible]

株式 廿九日

◆朝取短期◆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實株◆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商品 廿九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丁 電話長九一六 一六九三 一一六五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金先送料要

金白·銀金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〇番地(小廣橋側) 電話本局二二六番 振替京城五一四番 地方注文 代金引換販賣 金先送料要

金銀 高價買入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七 殖金商會 電本四五八〇番